

**일본의 노사관계 연표 및  
주요통계자료집(1945~89)**

**1990**

**한국노동연구원**

# 目次

- I. 勞動政策 및 勞動運動年表
- II-1. 勞動組合組織의 變遷圖
- II-2. 年度別 勞動組合組織一覽
- III-1. 民間主要企業 및 中小企業의 春季賃金引上 狀況
- III-2. 公共企業體의 賃金引上 狀況
- III-3. 國家公務員의 給與引上(人事院勸告)의 推移
- IV-1. 勞動爭議件數, 行爲參加人員 및 勞動損失日數의 推移
- IV-2. 春季鬭爭 參加人員의 推移
- IV-3. 메이데이 參加人員의 推移
- V. 주요경제지표일람

펴내면서

1987년 여름 이후 노사관계 상황이 급변하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 모델을 찾는 노력이 노사 및 학계를 중심으로 경주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전후 격렬한 노사분규를 거치면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 선진국으로 부상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연공서열형임금제도, 종신고용제, 기업별노조 등으로 특징지어져 온 일본 노사관계제도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두고 일본의 이러한 특징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은 피차간에 매우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 밝혀져 가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 노사관계에 대한 개설적인 설명이나 쟁점중심의 서적들이 많이 소개되면서 일본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은 상당히 넓혀졌다고 본다. 그러나 학계 및 일선현장으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의 노사관계 전개를 연표 및 통계지표로써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화한 자료는 거의 없는 듯하다.

본 통계자료집은 이러한 요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사관계 및 노동경제관련 연표와 주요 통계를 1945년부터 1989년까지 45년간의 시계열로 소개한다. 노사현장의 시각에서든 학계의 입장에서든 허심탄회한 비판과 조언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이를 보완하여 내용을 더욱 다듬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이 통계자료집의 발간을 위하여 자료수집 및 집필에 크게 애쓴 본 연구원의 康淳熙 연구원과 편집과정에서 수고한 朴贊暎 주임연구원 및 朴榮河 연구조원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통계자료집이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에 애쓰는 노사당사자 및 학계의 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90년 11월 19일

한국노동연구원

院長 孫昌燾

# I. 日本勞動政策 및 勞動運動年表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월	노동운동
1945 8	· 終戰 - 연합군 일본진주		
10	· 연합군 총사령부(GHQ) 남녀동등권 및 노동조합 권리 등 지령	10	· 海員組合결성 (戰後 최초의 노동조합) · 讀賣新聞쟁의 (경원민주화요구, 최초로 생산관리 기술제약-50일간)
11	· 세계노련(WFTV)결성 (파리)	11	· 總同盟學園會합족, 활동개시
12	· 일본사회당 결성 · 공산당 재건 · 공산당 제4차대회 (전후최초대회) · 연합군을 대방군으로 규정하고 평화혁명 방침 결정 · ILO산업노동위원회 최초제약		
1946,		2	· 産別學園會 합족, 활동개시 · 國鐵總連合결성 (1947년 6월에 國勞로 단일화됨)
3	· 노동조합법 시행		
5	· 제17회 케이데이 (전후최초) · 식량케이데이 (5월19일)	5	· 全總결성
6	· 사회질서보호에 관한 정부성명 (생산관리부정)		
		7	· 운수성, 國鐵인원정리방고 (75,000명)
		8	· 總同盟 결성 (대회참포 86만명)
		8	· 産別會議 결성 (대회참포 163만명)
9	· 三井, 三菱, 安田 재벌해산명령	9	· 운수성, 75,000명의 인원정리안 철회 · 國鐵總連 24시간파업 중지
			· 海員쟁의 해결-선박운행회, 6만명대고 취소
10	· 노동쟁의조정법 시행	10	· 10월노동공제 (공산당, 산별회의 지도하 실시) · 신문통신방송, 全炭, 電産, 全日本機器 등 순으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월	노동운동
			· 모 기업들입 (산별회의참포에 따라면 13學産, 32만명 파업참가), 사회당, 총동맹은 정치파업발태 성명발표
11	· 신헌법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11	· 日勞會議 결성 (대회참포 30만명, 중립제)
		12	· 산별회의 총동맹에 통합 재의, 총동맹거부 · 全官公廳부정산인 · 中勞會, 國鐵 및 全總에 조정안제시, 양노조거부
1947,		1	· 全官公廳 2.1.총파업산인 · 全總 (全國勞組共闘會)결성 · 全總, 맥이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아들여 2.1.총파업 중지결정, 全總해산
2	· 경제부흥회의결성 (산별회의, 총동맹, 경영자단체 참가)	2	· 2.1.총파업 불발 · 全官公廳쟁의, 중노위 鶴宮에 의해 해결
3	· 세계노련 대표단 발령 · 브루만 케데정책, 反共政策 발표	3	· 全勞總결성 (대회참포 446만명)-1948년 6월 총동맹 발피, 뒤이어 民間系노조가 탈퇴함으로써 1950년에는 약 200만명으로 감소
6	· 片山사회당내각실립 (사회당 7, 민주당 7, 원동당 2, 綠風 1의 연합내각)	6	· 經濟者團總連合會결성(1948년 4월 日經總으로 개조)
7	· 미국, 마셜플랜 발표		
7	· 독점금지법 시행	7	· 산별회의 입시대회
9	· 勞動법 합족 · 노동기준법 일부시행 · 노동자 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0	· 국가공무원법 공포 (1948. 7. 1 시행)	10	· 國勞大會流會- 지역투쟁전승을 둘러싸고 좌우파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안정법 제정</li> <li>· 실업수당법· 실업보험법 제정</li> <li>· 코련포럼 결성</li> <li>· 프랑스 노동총동맹 분열, CGT·FO 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 대립 (우파는 전체투쟁 주장, 좌파주장인 지역 투쟁전술이 채택되자 결행부 총사퇴로 유회)</li> <li>· 炭協분열- 우파는 炭協결성, 좌파는 全石炭결성</li> </ul>
12	· 石炭國管法 공포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總大會- 지역투쟁방침 결정</li> <li>· 國議反共連盟 결성</li> </ul>
1948.			
2	· 片山內閣 총사직	1	· 임시금여위원회 발족 (國勞단 참가)
3	· 芦田內閣성립 (사회당 8, 민주당 7, 공동 2의 연합내각)	2	· 産別民主化同盟 결성
	· 民主自由黨 결성	3	· 임시금여위원회, 2,500원 배이스 권고-國勞 受諾
4	· 경제부총회의 해산결정	3	· 全官公廳노조 3월노동공세- 임금인상, 생활보조금문제, GIQ 맥아더의 설명에 의해 중지됨.
			· 國議革新同盟(革新) 결성
		4	· 國議反共連盟, 민주화同盟으로 개칭
		4	· 日經連 발족
		5	· 國勞大會- 左旋回, 全官公廳노조의 통일투쟁에 참가 결정
		6	· 총동맹, 전노련발족- 뒤이어 民團系노조가 탈퇴
		7	· 7월 노동공세- 공산당의 지도하에 全官公廳노조가 중심이 되어 불가안상반대 등의 정치요구를 내걸고 지역인민투쟁, 反稅투쟁, 換發투쟁 등을 실시
			· GIQ, 맥아더書翰 발표- 공무원법의 개정, 國議, 轉費의 공개입제화 등 지시 (國議, 郵政 등 現業總의 정외행위금지, 계속중인 것은 조정으로 중지)
			· 정부, 맥아더書翰에 따라 政令 201호 공포시행
			· 國勞, 全總에서 政令 201호에 반대하여 격장포기

연월	노동정책 및 경제	월	노동운동
10	· 제 2차 吉田内閣 성립	9	투쟁, 당국측의 계속된 처분으로 직장포기투쟁은 마무리됨. · 全官公廳刷新同志會 결성 (全官公廳內 民主化同盟세력의 결집)
11	· 개정국가공무원법 공포- 과업규제, 인사원천고제도 설치등 (12월 시행) · GNP, 임금 3원칙 (적자율자정지, 임금인상금지, 보조금중지) 발표	10~12	· 全總中央委員會- 橫綱闘爭방침 결정 · 秋季연말투쟁- 민간노조중심, GNP명령에 의해 파업은 대부분 중지됨.
12	· 인사위원회, 官公廳 직원급여개정권고제시 · GNP, 일본경제재건에 관한 경제 9원칙 (자립경제의 달성, 인플레이억제등) 발표 · 公共企業體等 勞動關係法 공포 (1949년 6월 시행) · 중의원 吉田内閣 불신임가결, 중의원해산		· 全國中立無所屬勞協結成- 日勞會議, 東京무소속, 기타 중립제노조 결집. 1949년 「全中總」으로 개칭
1949. 1	· 제24회 중의원선거- 民自黨 과반수획득, 공산당 5명에서 35명으로 伸張, 사회당 폐퇴 · 世界勞連 분열 · 동유럽상호경제원조회의 발족(COMECON)		
2	· 도지라인 (Dodge Line) 실시- 초균형예산을 통한 경제재건정책	2	· 全勞會議 결성 (대회대표 177만명) - 총동맹, 産別民同, 國總로 결성
3	· 영국 TUC, 미국 CIO, 네덜란드 NVV, 「자유로운 국제적 노조결성」 성명		
4	· 1달러당 360엔의 단일환율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실업대책법 제정</li> <li>· 서방 12개국, 북대서양조약(NATO) 조인</li> </ul>		
6	· 국제자유노련결성준비회, 國勞위원장 참석	5	· 官公勞 結成- 官公廳內의 民間系 조합의 결성
7~10	· 세계노련 제2회 세계대회(필라노) · 행정정리 - 1948년 1월현재, 정권의 25% 감한 (28만 5천명), 國鐵 9만 5천명 감한	6	· 國電파업 (人民電車)- 새로운 코대제반대, 公勞法적 용후 최초의 불법파업
11	· 국제자유노련(ICFTU) 결성(연던)	7	· 全日勞 결성(대회참표 50만명)- 全中懸을 기반으로 하여 東京無所屬, 日勞會議, 關西無所屬 등 결성, 總評 결성에 따라 1950년 7월에 해산하여 單産別로 총칭에 가입
12	· 人事院, 공무원급이 7,877명 베이스연고 · 정부, 인사원연고 및 國鐵 중재제정에 대하여 급이베이스를 변경할수 있다고 결정	9	· 국제자유노련가맹협의회 결성 · 國勞 成田중앙위원회, 태고전 임원배제
1950. 1	· 코민포임, 日共 野坂參三의 平和革命方式 비판- 日本共產黨, 국제파와 所感派로 분열 · 사회당 제5회대회, 좌우양파로 분열 (4월에 재등일)	12	· 新産別 결성(대회참표 33만명)- 産別民團이 정식으로 노조조직 결성 · 國勞, 중재제정의 완전실시를 요구하면서 단식투쟁 실시
3	· 自由黨 결성		
6	· 한국전쟁 발발 · GMD, 日共中央委員의 공격수령명령- 日共 간부 지하검입	3	· 總評 결성준비대회

연월	노 동 정 책 및 정 세	월	노 동 운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MD, 「赤旗」(アカハタ) 발행금지명령</li> <li>· 日共, 總評을 「賣國總評」, 「國際帝國主義의 알갱이」라고 비난</li> <li>· 제 2회 참의원선거에서 自由黨, 韓風會를 제치고 제1당으로 부상</li> </ul>	7	· 總評결성 (대회참표 365만명)- 노동조합주의, 반공, 국제자유노련지향을 기본이념으로 함.
8	· GMD, 全勞總해산명령	7~11	· 總評, 한국전쟁에 대하여 「북한군의 계획적 침략행위 . . .」라는 성명발표
9	· 각료회의, 레드피지 (Red Purge)기본방침 결정	9	· 레드피지- 연간에서 11,609명, 관공청에서 약 1,500명의 공산당원 추방
12	· 지방공무원법 국회 통과 (1951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12	· 總評, 「레드피지는 부득이할 조치」라는 태도 결정
1951. 1	· 미국 딜레스特使 講和문제로 被日	1	· 딜레스特使 訪日을 계기로 노동계에 講和문제를 둘러싼 논쟁활발
2	· 사회당대회- 강화문제로 좌우계분열에 주 104원칙 결성 · 日共 제4회 전국협의회- 군사방정 결성 · 사회민주당 결성-위원장 卞野力三	3	· 總評파과, 勞動者同志會 결성- 강화4원칙(전면강화, 중립건지, 군사금지반대, 재군비반대)을 주장 · 總評 제2회 대회- 강화4원칙 결성, 국제자유노련 입찰가입은 부결
4	·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해임, 리지엄		

	이 취임		
5	· 국제자유노련아시아지역조직(ICFTU, ABO) 결성		
6	· 제1차 추방해제 · 제34회 ILD총회에서 일본 재가입	6	· 國勞 新滿대회- 평화 4원칙을 둘러싸고 民同派가 좌우로 분열 (우파는 9월에 새로이 民同 결성)
7	· 국제자유노련 제2회 세계대회	7	· 평화수진국민회의 결성- 總評 平和運動 게시
8	· 제2차 추방해제		
9	· 강화조약 (일본의 독립) 및 美日인보조약 조인- 11월 국화승인, 1952년 4월 발효	9	· 總評내 우파, 좌파의 勞動者同志會에 대항하여 民勞회 결성 (1953년 2월 民勞總으로 개조) · 秋季연일투쟁- 총정, 노동법 개악반대투쟁으로 파업 실시 강조 (합법주의 피석)
10	· 사회당입시대회- 강화조약, 인보조약을 둘러싸고 좌우파로 분열		
	· 日共五全協- 51년 강령 (폭력혁명명령)결정, 당내통일우선		
12	· 日共全國組織會議, 總評에 입재가입전술 결정		
1952. 1	· 우파 사회당대회		
	· 좌파 사회당대회		
2	· 改進黨 결성	2	· 總評, 資金綱領 草案발표- 지일금제에 따라, 總資本對 總勞動의 대결강조
4	· 對日 강화조약 발효- 일본의 독립	4~6	· 勞團파업 (就防法을 반대하는 정치파업) · 4번의 동맹파업실시
	· 세계노련, 모스크바 경제회의 개최		
5	· 제3회 베이데이- 皇詔前事件 발생(피의 베이데이)		
	· 지방공영기업 노동관계법 제정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월	노동운동
5~6	· 日共 4월비전술전개 (7월에 전술전환)		
7	· 編進黨 결성 (농민, 사민당과의 합당) · 10월해제, 후에 우파 사회당에 입당	7	· 總評 제3회대회- 反美的 태도강화, 국제자유노련 비판
10	· 제25회 중의원선거- 좌파사회당진출 자유당 과반수	10~11	· 炭勞 장기파업 (63일) · 電産 장기파업 (勞電파업 실시)
	· 세계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회의 개최 (북경)		
12	· 국제자유노련집행위원회- 總評을 비판	12	· 總評내 4부産 (海員, 全鐵, 全映演, 日放勞)성명발표 · 總評의 정치전향 비판
1953. 3	· 소련 스탈린사상- 후계자 말렌코프		
	· 吉田수상 정계동력단 가결 (失音문제), 국회배산	3	· 總評, 「기업규제법 반대, 내각타도」를 중심목표로 하여 투쟁을 전개하고자 함, 국회배산으로 선거투쟁으로 돌아섬.
4	· NSA 협정, 美日交渉 게시		
	· 정부, 건축정책 실시		
	· 제26회 중의원선거- 좌파사회당선장, 자유당 과반수		
	· 제3회 참의원선거- 좌파사회당, 綠風會 제치고 제2당으로 됨		
	· ICFTU 동경사무소 설치		
5	· 평화경제국민회의 결성		
	· 제5차 吉田 內閣성립		
6	· 좌파 사회당, 총정의 운동방침에서 「제3대역론」이 사라졌다고 경고		
7	· 국제자유노련 제3회 세계대회(스톡홀름)	7	· 총정 제 4회대회- 「평화세력론」을 기조로 한 운동방침 결정, 大倉후 太田를 중심으로 高野사무국장 비판 고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 과업규제법 국회통과</li> <li>· 노동금고법 공포</li> <li>9 · 노동문제협의회 발족</li> <li>· 국제자유노련 아시아지역조직 제2회 대회 (동경)</li> <li>10 · 세계노련 제3회 세계대회 (비엔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 과업규제법 반대투쟁- 3번의 과업실시</li> <li>· 海員, 總評말피</li> <li>9 · 全映演, 總評말피</li> <li>11 · 全議, 總評말피</li> <li>· 三續連 (三井)의 인원정리 반대투쟁- 8~11월에 걸쳐 이른바 113일 투쟁 전개, 회사 인원정리안 철회</li> </ul>
195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護憲連合의 결성</li> <li>· 과파사회당대회- 강령결정, 總評 高野사무국장, 清水私案을 지지하여 과파사회당 주류파와 대립</li> <li>· 日共, 合法活動 강화</li> <li>5 · MSA 관계 4월정 조인</li> <li>· 교육관계 2법, 국회수정가결</li> <li>6 · 세계노련, 노동조합관리현장 기초위원회에 총징대표 참가 (비엔나)</li> <li>7 · 베트남 휴전협정 성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國議, 연립투쟁 책임자로 柴山 國勞위원장등 18명배고</li> <li>2 · 교육관계 2법안 반대투쟁개시</li> <li>3 · 總評내 勞動者同志會, 太田派와 高野派로 분열</li> <li>· 合化勞連대회- 高野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총징 지도부를 비판</li> <li>4 · 全勞會議 (全勞)결성 (대회발표 84만명)- 反共, 勞動組合主義理念을 당침으로 결정</li> <li>7 · 總評 제5회대회- 太田 (中立 견지(제3세력론), 산업</li> </ul>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월	노동운동
9 10 11	· ICFTU, ABO지역회의, 총평비판 · 노조대표, 공산권 방문게시 · 日本民主黨 결성 (자유당탈당과, 개진당 일본자유당 합당)	8	· 별 공동투쟁중심으로 독점자본과 대결, 高野(平和 勢力論, 國民總抵抗투쟁에 의해 미제국주의, 독점자 본과 대결) 시무국장선거에서 결전, 140대 107로高 野 당선, ICFTU와의 오키제기 및 연대강화 방침결 정 · 총평내 太田派, 新労働者同志會 결성
1955. 2 3 5 7 10	· 제27회 중의원선거- 자유당후퇴, 민주당 제1당, 좌우 양사회당 신장 · 일본생산성본부 발족- 總同盟, 海員잡가, 총평 반대운동게시 · 총평대표, 모스크바, 북경 메이데이 참가 총평과 全蘇勞評 공동성명 발표 · 아시아 사회당회의, 「아시아 노조세미나 개회」(행구운) · 국제자유노련 제4회 세계대회 (비엔나) · 日共 6全協- 극좌모험주의 자기비판, 日 共 내부동일 · 좌우 양사회당 통일	3~4 7 8 10	· 8單産 共闘(炭勞, 私鐵, 台化, 電産, 電機, 중이릴 프, 全國金屬, 化學同盟 計75단체)에 의한 임금인상 요구의 산업별 통일투쟁 전개- 3번의 실행행사 · 총평 제6회대회- 巖井시무국장 선출로 太田- 巖井體 制 확립 · 全勞 제2회대회- 생산성향상운동을 둘러싸고 總同 盟 (참가)과 全鐵이 대립 · 總評, 임금행동강령발표- 임금은 力關係로 결정, 저 임금체제의 타파강조

11	· 보수당의 합당, 「자유민주당」으로 통일 (55년제재-2대정당시대)		
12	· 미국, AFL과 CIO 통합		
1966.	(神武景氣 : 1966 ~ 67년)		
1	· 労働問題懇談會 발족		
2	· 소련공산당 제20회대회- 스탈린비판, 권 경회치의 가능, 사회주의사회로의 성숙적 이행의 가능성, 평화공존의 방침결정	2~4	· 「春闘」제시 (數量 (神武) 景氣下の 春闘) : 최초의 만민노조의 공동투쟁, 7번의 실행행사, 290만명 참가, 임금인상 1,063년, 6.3%
6	· 日共 7中總- 51년 강령 재검토를 위한 대 회준비 개시		· 中労懇 결심(대회참로 75만명)- 9월에 中労懇로 명칭변경
7	· 제4회 참의원선거- 사회당 선장	7	· 全勞 제3회대회 - 생산성향상운동 문제를 둘러싸고 總同盟-海員과 全鐵이 대립, 입헌재선거
8	· 公共企業體等 労働委員會 발족	8	· 總評 제7회대회- 「공산당이 지배하는 日共에 참가 하지 않는다」를 운동방침에서 삭제하기로 결정, 국제자유노연지향방침도 완전히 사라짐
10	· 헝가리사건- 소련군 개입	10	· 砂川基地 반대투쟁- 경찰과 노조원의 난투사건 발생
11	· 中國 總工會대표 처음으로 訪日	11~12	· 추계연말투쟁 - 4번의 실행행사 실시 (春闘 전단계투 쟁으로서의 성격)
12	· 日·蘇 국교회복 · 日本, UN가입 · 福山内閣 총사직, 石橋内閣 성립 · 중국공산당, 소련의 스탈린비판을 修正主義라고 비난, 中·蘇對立 표현화		

연월	노 동 정 책 및 정 세	일	노 동 운 동
1957. 2	· 石橋内閣 총사직, 岸内閣 성립		
3	· 岸·鈴木회담- 중재제정, 상의있게 실시 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	3	· 春闘 (神武景氣하의 春闘)- 高原闘甲方式 채용(3.11 ~15,에 파업결중), 3.23, 國勞 예고없이 직장이탈 쟁투규모 320만명, 임금인상 1,518년, 8.6%
4	· 각료회의, 3公社 5現業의 중재제정 환전 실시 결정 (이후 환전실시) · 노동복지사업단법 제정 · IMF동경사무소 설치 · 유럽경제공동체(EEC), 원자력공동체 양조 약 조인	4	
6	· 岸 수상 訪美, 미일공동선언발표	6	· 國議, 대당처분실시, 國勞 처분반대투쟁실시
7	· 국제자유노연 제5회 세계대회 (튀니스)	7	· 총평 제8회 임시대회(최초의 임시대회) - 10월 결정 ILO 87호 조약비준 촉진활동전개등의 방침결정
		7	· 原口 총평의장, ILO총회에 ILO 87호 조약비준결의안 제출
		7	· 國議 新演説甲- 新演説장 수송마비, 1951년 6월에 民間派가 좌우로 분열된 이후 民間左派는 辜潤派와 제휴하여 왔지만, 이 투쟁에서 新演説甲을 지도했던 辜潤派와 대결
		8	· 全勞 제4회대회- 全議, 電力 각 노조가 「투쟁하는 全勞」 강조, 적극적 운동을 추진할 것을 결정
		8	· 총평 제9회대회- 조직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결 정
10	·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성공 · 세계노연 제4회 세계대회 (라이프치히)	10	· 公勞委 藤林의장, 國議 노사에게 斡旋案 제시- 노사 수락 (단체교섭체계)
11	· 모스크바선언 (사회주의제국 공산당회의)		· 總評, 太田부의장차 託자세론

	선언)		
		12	· 총칭, 58년 春闘에 입하는 「賃金白書」 발표 (이후 매년 발표)
1958.	(남미불경기- 1958년)		
1	· ICFTU, ITF조사단, ILO 87호 조약준수로 訪日 · 유럽경제공동체(EEC) 발족	2	· 産別會議 해산
3	· PTT대표, ILO 87호 조약준수로 訪日	3~4	· 春闘 (남미불경기하의 춘투)- 民間勞組前面 거점분 목 투쟁방식채용, 370만명 참가, 임금인상 1,050엔, 5.6% (春闘後 「民間의 限界」, 「民間으로부터의 脫 皮」 등의 의견이 총칭 주류파내에서 높아짐)
5	· 제28회 중의원선거- 自民, 社會黨세력이 을 플랜		
6	· ICFTU, 빌라드조직원장 訪日		
7	· 日共 제7회대회- 新綱領 결정지 못함, · 적업준원법 제정	7	· 총칭 제10회대회- 日中 국교회복 등으로 대중운동에 서 日共과도 협력할 것을 방침으로 결정, 太田의장 취임 · 총칭, 조직강령초안 발표(정식결정에는 이르지 못함) · 王子製紙伊議- 임금인상, 노동협약 관련문제로 무기 한 파업에 돌입, 12월에 해결
9	· 메일안보조약개정교섭 개시	9	· 근무정정 반대투쟁- 총칭은 아동노동기부 전술을 결 정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아 전술전환
10	· 경찰관직무집행법(警職法) 개정안 국회 상정	10	· 총칭 제11회입시대회- 警職法 반대투쟁방침 결정 · 全勞 제5회대회- 警職法 반대로 11월 5일에 1시간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월	노동운동
		10~11	· 警職法 반대투쟁- 11월 4일, 갑작스런 국회회기 연 장 결정후 급속히 확산
	· ICFTU, ILO 87호 조약에 관하여 일본정부 에 서한발송 · 국제자유노련, 국제실용노동총회 제1회 아시아 실용노동자 대회 (동경)	12	· 全勞, 노동전선통합문제에 대하여 대회주장 (노동 4 단체의 대화, 1959년 8월 중단됨)
1959.	(巖戸號誌- 1959 ~ 61)		
1	· 日共, 일본의 중립화방침 결정		
2	· 무바혁명 · 노동문제간담회- ILO 87호조약 비준과 선 제법 개정 압선	2~3	· 春闘 (경기회복과정하의 春闘) · 동서교섭 ( '總方ラミ' )전술채택, 390만명 참가, 임금인상 1,281엔, 6.5%
4	· 최저임금법 성립	3	· 안보개정저지 국민회의 결성(공산당정식참가, 全勞, 新産別 포함)
5	· 중소기업회적금 공제법시행 · 탄광이적자 임시조치법 제정 · 통일지방선거	4	· 國議志見장업소 拂下反對闘爭
6	· 제5회 참의원선거- 자민당 안정과만수 획득	6	· 총칭 太田의장, 下呂談話- 日共과 원칙적인 共闘발표 · 太田의장, 大阪談話- 안보투쟁할 생각이 없는 全勞, 新産別보다 日共과 共闘

	9	· 미소정상회담, 공동성명(평화적수단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 발표	8	· 총칭 제12회대회- 중소조직가 300명 조직을 위한 1인 45년 모금운동결정, 운동방침중 정당과의 관계항목만 결정하지 못함(정당지지문제공백).
	10	· 사회당 제16회대회(분립)- 西尾세명문제 둘러싸고 西尾파 탈당	10	· 國權新民生團(民團右派), 國權본부에 총칭의 지도 방침변경, 신당지지 등에 관하여 제안
	11	· 중소정상회담, 공동성명없이 중소대립격화	11	· 총칭 제13회임시대회- 안보투쟁강화, 三池투쟁지휘 방침결정
	11	· 중국 總工會, 안보투쟁지휘 메시지 총칭 등에 발송	11~12	· 全勞 제6회대회- 사회당의 「파식권함」을 비판하고 노동조합주의 입장에 신 현실주의방침 결정
	12	· 국제자유노련 제6회대회(브뤼셀)		· 全總 단세교섭제계투쟁
	12	· 일본정부, ILO 87호 조약비준을 위한 국내입법비 착수결정		
1960. 1	1	· 民主社會黨 결성대회- 위원장 西尾末廣	1	· 총칭내 勞動者同志會, 「일본적 조합주의」라는 새로운 방침결정(경제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이와 결합하여 정치투쟁강화)
	1	· 미일 신안보조약 조인- 안보반대투쟁 본격화	3~4	· 春闘(巖戸豐氣하의 春闘)- 장기유연투쟁, 파업은 거의 없었음, 410만명 참가, 임금인상 1,752엔, 8.7%
	1	· 소련, 미일안보조약 비판		· 三井三池伊藤- 제2노조 입경(入坑) 강행, (1958년 8월 제2차 합리화안 제시로 시작하여 12월 1,200명 지명해고 붐고, 59년 3월 28~29일 제2노조가 입경강
	4	· 정부 ILO 87호조약 비준안건 관련 4법안 국회 제출		
	4	· 진폐법 제정		

연월	노 동 정 책 및 정 세	월	노 동 운 동
5	· 自民黨, 국회회기 언장, 신안보조약비준 단독가결	5~6	· 안보투쟁- 5월19일의 자민당 단독제결이후 급속히 가열, 6월 4일, 15일, 22일 교통관계노조를 중심으로 정치스브라이크
6	· 아이젠하워대통령 발언언거	6	· 총칭 제14회 임시대회- 三池투쟁지휘방침 결정
	· 신안보조약비준시교란- 이후 안보투쟁 급속히 진정		
	· 정부무여한자유화계획결정-3년후 80%달성		
	· 신채장예자 고용축진법 제정		
	· 세계노련 총칭의회, 평화공존노선을 둘러싸고 中解對立		
7	· 岸內閣 총사직, 제1차 池田內閣 성립	7	· 三池쟁의- 중노위 韓變을 巖戸 受諾
			· 총칭 제15회 정기대회- 사회당지지, 事業마다 혁신 정당과 협력, 조직강화 방침결정
8	· 民社黨, 「중산계급화정책」 발표		
	· OPEC 탈퇴		
9	· 민사당 제2회 임시대회- 중선거대책	9	· 총칭 제16회 임시대회- 중노위 앞선안에 따라 三池 투쟁수습, 탄광이적자 대책등 정책전환투쟁강화 방침 결정
10	· 漢沼사회당위원장 자살사건발생		
	· 사회당 임시대회- 구조개혁논쟁		
	· ICFTU 회장을 방입, 일본정부에 ILO 87호 조약 비준요청, 일본의 노동전선동일강조		
11	· 제29회 중의원선거- 민사당 후퇴	11	· 총칭 太田의장 탈퇴- 日共비판
	· 81개국 공산당회의		
12	· 제2차 池田內閣 성립- 국민소득 세중계획 결정	12	· 三池방입스 전면생산재개

1961. 1	· 민사당 제3회대회- 제진대회, 西尾위원장 재선	1	· 총령과 사회당간의 구조개혁논쟁 활발
3	· 사회당 제20회대회- 구조개혁론에 기초한 운동방향 결정	3~4	· 全勞 제7회대회- 민사당강화, 총동맹과의 조직 결합 등 논의, 현실치리방침 결정
5	· 全美勞働組合總盟(AATUF) 결성	5	· 全勞 (麗戶總盟 3년제인 호랑하의 全勞): 장기강력 투쟁, 공노협상의 「파업선언」, 그러나 3월 31일 12시간파업 중지, 일경련, 「금복임금」 선언, 440만명 참가, 임금인상 2,970원, 13.8%
6	· 자민, 민사당 政防法 강행체결, 의장앞선으로 계속 심의키로 함		· 「정치적 폭력행위방지법안」(政防法) 반대투쟁
7	· 고용촉진사업단법 제정		
7	· 日共내 春田과 당내민주주의, 1인단체 혁명을 주장하여 탈당	7	· 총령 太田의장 담화- 全勞와 중립노련까지 포함한 反파쇼통일전선결성 제창
7	· 日共 제8회대회- 신강령 결정 (2단계 혁명, 통제강화)		
8	· 민사당, 소련의 핵실험제재 반대성명	8	· 총령 제17회대회- 일본적 조합주의를 기초로한 운동 방침결정, 日共 비판에도강화
9	· 사회당, 미소대사관에 「어떤 나라의 핵실험에도 반대」 한다는 의견제출		
10	· 政防法案 재차 계속 심의키로 함	10~11	· 추계연말투쟁- 炭勞의 정채전환투쟁중심
10	· 식탄대책안제출안 심의		
12	· 세계노련 제5회 세계대회 (모스크바)	11	· 총령 제18회 임시대회- 춘투방침 결정
1962. 1	· 사회당 제21회대회- 구조개혁론을 둘러싼 논쟁, 河上丈太郎위원장 선출	1	· 全勞 제8회대회- 총동맹과의 조직경합을 조직문제, 임금문제를 중심으로 논의, 운동방향 결정
	· 민사당 제4회대회- 강령, 규약결정, 西尾		

연월	노 동 정 책 및 정 세	일	노 동 운 동
2	· 末廣위원장 선출		
2	· 미국노총조합연합 (AFLC) 결성		
2	· ICFTU, 일본정부에 ILO 87호 조약비준을 요청		
3	· 池田수상, 케네디 미대통령과 후크시프 소련수상에게 핵실험중지요청 전서 보냄	3~4	· 춘투 (경기조정하의 춘투)- 철강노련신투투쟁 (총후 피전술), 480만명 참가, 임금인상 2,516원, 10.7%
3	· 국제자유노련 환권고용대회회의		· 炭勞 정채전환투쟁- 총동맹 투쟁
5	· 산산업도시건설촉진법 공포 (8월시행)	5	· 총령 산하노조, 「국제조직(ICFTU, ITS)가맹조합연락회의」 결성
5	· ILO 87호 조약비준안건 및 政防法案 제기		
7	· 제6회 참의원선거- 사회당 참패, 민사당 후퇴		
7	· 국민소득배증계획 閣議 결정		
7	· 국제자유노련 제7회 세계대회(에를린)	8	· 원·수소복합금지 세계대회- 사회당, 총령은 「어떤 나라에서의 핵실험에도 반대」 한다고 주장, 日共과 대립하여 퇴장
10	· 무역자유화를 88%		· 총령 제19회대회- 경제투쟁중시, 자본주의국가의 노동조합과 교류강화방침 결정, 미소 어떤나라의 핵실험에도 반대결의
10	· 일본공산당 4중대회- 총령의존극복, 독자 활동강화방침 결정		· 총령 太田의장 담화- 공산당은 총령이 조직하는 운동에 참가시키지 않음.
10	· 사회당 江田서기장, 「사회주의의 새로운 비전」 발표		
10	· 민사당 제 5회대회- 민주류파, 인사대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 西尾위원장, 西村사기장 산출</li> <li>· 무비위기</li> <li>· 간축정책 환전대책</li> <li>· 사회당 제22회대회- 江田비전으로 논쟁, 江田사기장 사임</li> <li>· 루이지 IMF회장 발입, 「입금공동조사센터」설치를 제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li> <li>11~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령 임시대회 (20,21회)- 「新選刊」 발행으로 인한 적자처리문제 협의</li> <li>- 동맹회의 결성(대회발표 140만명)- 全勞, 총동맹, 全官公 3단체로 구성, 申地회장, 天池사무국장 선출</li> <li>- 추계연말투쟁- 民勞의 정적전환투쟁 중심, 12월14일 총령지친 총파업 (대중참여 부족)</li> </ul>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li> <li>7</li> <li>8</li> <li>10</li> <li>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지방선거</li> <li>- 일본 GATT 11條國으로 이행- 무역자유화율 89%</li> <li>- OECD 이사회, 일본가맹승인</li> <li>- 美·英·蘇 부분핵실험금지조약 조인</li> <li>- 三池연장 특별사교</li> <li>- 日共 7중대회 - 중소대립 가운데서 중국 노선을 취한다는 방침 결정</li> <li>- 제30회 중의원선거- 사회당 꺾패, 민사당 신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li> <li>2</li> <li>3~4</li> <li>7</li> <li>8</li> <li>10</li> <li>11~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勞 제9회대회 (총동맹 분리후 최초대회)- 7년간에 걸친입금 배증방침 결정</li> <li>- 총령 제22회 임시대회- 「新選刊」 무제처리방침 결정</li> <li>- 춘투 (한만한 경기상승하의 춘투)- 용업에 맞먹는 임금칙득 1차년도, 私鐵總連 선두투쟁배치, 520만명 참가, 임금인상 2,237엔, 9.1%</li> <li>- 총령 제23회대회- 太田, 巖井, 「新選刊」의 책임을 지고 입단 사퇴후 재선됨, 운동방침에서 정치투쟁주의 강화</li> <li>- 원·수복금지세제대회- 사회당계와 공산당계로 분열</li> <li>- 춘투공투회 「賃金白書」 발표 (이후 매년 발표, 총령은 이후 독자적인 임금백서 발표하지 않음)</li> <li>- 全勞 제10회임시대회- 同盟會議 입회화방침 결정</li> <li>- 추계연말투쟁- 全總의 特定融會문제, 勤勞의 합리화 반대 등이 중심이슈</li> </ul>

연월	노동정책 및 경제	일	노동운동
196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관계각료회담회- 공공요금 1년간 동결을 결정</li> <li>- 민사당 제6회대회- 복지국가건설, 의회주의 철저주의 운동방침 결정, 西尾위원장 5選</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당 제23회대회- 江田, 和田, 河上의 3파에 의한 집행부 독점, 河上위원장 재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li> <li>3~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령 제24회 임시대회 (최초의 춘투체제확립을 위한 임시대회, 이후 매년 개최)- 춘투체제확립, 단건문 재증시</li> <li>- 춘투 (개발경제체제이행 첫째, 경기회강하의 춘투)</li> <li>- 장기高原투쟁방식 (중화학공업 청년노동자 선두) 池田, 太田회담에 의해 4·17 총파업 중지(全勞 協만)- 520만명 참가, 임금인상 3,305엔, 12.4%</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 8條國으로 이행 (자유화율 93%), OECD 가맹- 개발경제체제로 이행</li> <li>- 日共, 4·8성명- 4·17파업은 도발적인 파업이므로 중지해야할 것임</li> <li>- 민사당, 4·17파업 비판 견해</li> <li>- 사회당, 4·17파업 지원 약속</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령 제25회 임시대회 (춘투중에 2번 개최한 것은 이례적임)- 춘투체제 확립</li> <li>- 全勞 제11회 대회- 당면한 임금투쟁, 최저임금투쟁 방침 결정, 瀧田회장, 和田사기장 10選</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兩院, 부분핵정지조약재결 승인</li> <li>- 日共, 志賀, 鈴木 隆名 (黨 경선에 반대하여 부분핵정지에 찬성투표), 양어는 「일본의 목소리」결성 (12월)</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금속노련일본협의회 (IMF·JC) 결성</li> <li>- 顧問회장 (전기노련), 瀬戶사무국장 (IMF 동경사무소장) 선출</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LO 87호 조약비준안건 8번째 제기</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FTU 총령가맹조합협의회」결성</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共 9중대회- 4·8성명을 자기비판</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령 제26회 대회- 日共, 민사당에 대한 태도 硬化, 全鐵連 4·17파업을 둘러싸고 太田, 巖井 추궁, 집단지도체제 확립요구, 민주투파 지지세</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원자력감수할 協議승인</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수복금지 세제대회- 사회당계와 공산당계 별도</li> </ul>

9	· 사회·민사당 기함반대성명 · ILO 실정조사조정위, 증인소환 청문회 · 日共 11차총회- 神山, 中野 除名	9~12	· 실시 · 추계연말투쟁- 원자력감수함 기함반대투쟁 중심
10	· 소련, 후르시호프수상 해임- 후임 코시긴 수상, 브레즈네프 제1서기장 · 중국 최초 핵실험 · 동경올림픽		
11	· 제1차 사쓰네카 실험 · 미국 원자력감수함 사색보 입장 · 日共 제 9회대회- 중국노선 재확인 · 미국민주당 존슨대통령 당선 · 공명당 결성대회- 위원장 原島宏治 선출 · 노동재해방지단체법 제정 · AFL-CIO회장, 동맹결성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일	11	· 全勞, 총동맹 해산대회 · 銅鑼결성 (대회참표 174만명)-全勞, 총동맹, 全官공이 합집 · 동맹, 국제자유노련에 입괄가맹신청 (65년 1월 가맹, 동시에 OECD, TUAC에도 가맹)
12	· 사회당 제24회대회- 佐佐木과, 집행부장약		
1965. 1	· ILO실정조사조정위 조사단 방일	1	· 임금공동조사센터 설립 · 동맹, 「賃金白書」 발표 (이후 매년 발표) · 동맹, ICFTU에 입괄가맹
2	· 閣議, 中期經濟計劃 (성장률 8.1%) 결정 · 미국, 월명목적 개시 · 「원수복금지일본국인회의」 (原水禁) 결성 · 사회당, 총칭제 · 민사당 제7회대회- 베트남 측사 정진결의, 西尾위원장 6選		
3	· 山淵특수장 도산	3~5	· 춘투 (불황하의 춘투)- 중화학공업선투 배치 (舍化

연월	노 동 정 책 및 정 세	월	노 동 운 동
5	· 사회당 입시대회- 佐佐木위원장 선출 (신입) · ILO 87호 조약비준안 국회통과(1966년 6월 발표) · 관계은행단, 山-중권 재건방침 결정 · 한일실정 조인	5	· 가 최선투), 투쟁장기화, 베트남반권투쟁과 정부외 · 정치색이 강함. 560만명 참가, 임금인상 150%, 10.6% 인상 · ILO 실정조사위 드라이어위원장의 제안에 기초하여 · 정부·총칭, 정부-동맹 제1회 정기회담 개시 · 難辨 총정사무국장 訪韓
6	· 한일실정 조인	6	· 베트남 반권투쟁으로 사회·공산당 1일共闘(6월9일)
7	· 제7회 참의원선거- 자연·민사당 후퇴, 사회·공명·공산당 신장 · 동경도의회의원선거- 사회당 제1당 · 閣議, 불황대책으로 국제발행 결정 · 국제자유노련 제8회 대회 (암스데담), 繼 III 동맹회장대리를 부회장으로 선출	7	· 총칭 제28회대회- 반전, 반독점투쟁강화등 정치투쟁 · 강화방침 결정, 반미태도강화 · 총칭, ICFTU대회 초청을 거부함.
8		8	· 원수복금지세계대회- 原水禁, 原水協, 核禁會議 각 · 각 일도로 개최
9	· 민사당, 사회당의 1일 공동투쟁제안 거부	10	· 총칭 제29회 입시대회- 한일조약 반대투쟁강화방침 · 결정
10	· AFL, CIO대표 방일, 총칭과 베트남 문제를 · 둘러싸고 대립 · 세계노련 제6회 세계대회 (비르시바)	10~12	· 추계연말투쟁- 10.22, 공무원공투, 인사원천고의 환 · 전실시를 요구하는 후일공공과업계획 (중도에 중지) · 한일조약비준 저지투쟁- 11월에 사회·공산당과 1일 · 共闘

11	· 공무원제도심의회 발족 · 閣議, 戰後 최초의 직자국채발행 결정 · 중국, 문화대혁명 시작	11~1	· 海員조합 장기과업- 사상최대규모의 과업 (4번의 과업)
12	· 민사당 제8회대회- 西尾위원장 7選, 西村 서기장의 한일조약관성 발언을 둘러싸고 대립 · 한일조약비준안 국회통과	12	· 정부, 동맹 제4회 정기회담
1966.	(이자나기정기- 1965~70년 이름)		
1	· 사회당 제27회 정기대회- 반주류파가 운동방침 공동수정안 제출, 佐佐木위원장 재선 · 물가문제간담회 최초회합	1	· 동맹 제2회대회- 4개의 민주주의를 기본방향점으로 하는 결성대회방향 받아들임. 中池회장, 天池서기장 재선 · 정부와 총정, 제4회 정기회담- 회합의 성격, 회의 운영 등에서 의견대립으로 이후 중단됨. · 임경원 「불황과의 승투와 임금문제」(승투에서) 발표 (이후 매년발표)
2	· 日共, 官本위원장 중국방문, 대학에서 이견	2	· 승투공투위주최 「물가 데이데이」(제1차통일행동업)
3	· 日共, 소련공산당대회 출석거부	3	· 총정 嚴井사무국장, 총정회 장기노선 및 아당연합정권 구상 (嚴井 構想)에 대하여 발표
4	· 日雇자동차, 프린스자동차공업 합병제약 조인 (자동차산업 재편성 시작) · 총정 太田회장, 都知事 출마표명 (7.29. 출마단념 발표)	4	· 승투 (경기회복 (이자나기정기시작)하의 승투)- 중화학공업선두(합화노련 선두), 住友화학등에서 건넌 보다 높은 회담, 私鐵總連의 해결로 건넌실적+ 분위기가 만연. 4월중에 파면수가 세걸, 평온속에 끝남. 승투참가인원 570만명, 임금인상 3,403명, 10.6%
5	· 사회- 연사- 공명- 공산당 소선거구제 반대 원내연락회의 결성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일	노동운동
6	· 고용대책법 제정 · 제17회 공무원제도심의회 총회- 노동측위원 불참한 채 공직위원이 작성한 답신안을 채택하여 사토수상에게 당선, 前田회장 사퇴표명 · ILO 87조약 발효 · 미국, 하노이- 하이퐁지구의 서용지장소 폭격 · 아시아대청양협의회(ASPAC) 설립 · 제 1회 日蘇 노조교류위원회(이후 매년 개최)	6	· 全議 原口위원장, ILO 노동측 理事로 당선 · 총정- 동맹, 공무원제도심의회의 답신안 채택에 관하여 비난성명 발표 · 총정과 전소련노조평의회, 제1회 日蘇교류위원회(이후 매년 개최)
8	· 사드 改組內閣 성립 (제2차 개조내각) · 문화대혁명 승리축하회- 북경 전안문광장 · 소련공산당, 문화대혁명 비판 · ICFTU, PTTI, PSI, ITF 등, 「일본노동조합의 재건리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7 8	· 鐵鋼勞連, IMF·JC 가맹 · 총정 제31회 정기대회- 1966년도 운동방향결정, 太田회장 퇴임, 신정생부 의장 嚴井利勝, 사무국장에는 嚴井章이 재선
9	· 사회당, 참의원결산위에서 共産黨  부정 음자사건 추궁 · 사토수상, 총정·동맹대표와 중단중인 「정기회담」과는 별도로 당면문제에 대한 의견교환	9	
10	· 중공당 중앙위 공작회의- 鄧少高·鄧小平 자기비판 · 일본공산당 제10회대회, 「저주목업노선」을 채택	10	· 총정 제32회 임시대회 · 10.21, 베트남 반전과업 (총정, 秋田 세번째의 통일 행동)
		11	· 동맹, 총정의 10.21. 반전과업 반대성명 · 총정, 사회당, 중립노련, 동경池田 등 「부패정치 사드내각을 타도하고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중앙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간담회, 카르텔 금제강화연고 (같은 날 해산)</li> <li>- 사회당 제28회 정기대회- 신킴병부위원장 佐佐木寛三 재선, 서기장 成田知巳(신입) 선출, 중경위세력 역전, 佐佐木 주류파 체제로 안정됨</li> <li>- 제54회 통상국회</li> <li>- 소련공산당중앙위, 毛澤東路線에 반격 결의</li> <li>- 세계노련총칭의회, 중국 全國總工會의 대표권 정지</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회, 개최</li> <li>- 총경 民間甲産會議 발족- 의장에 原口全議위원장</li> <li>- 경시청, 10.21.반전파업을 위법이라 규정하고 日教組위원장, 서기장 체포</li> </ul>
196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경 大字報, 일본공산당 비판 赤旗, '총위명의 부당한 비난에 답한다', 는 논문발표 (최초로 중국공산당비판)</li> <li>- 제3회 중외친선기- 자민당 (북포용이 처음으로 50% 하회), 사회당 후퇴, 민사·공명당 신장</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議 實衛위원장 '노동전선 통일과 사회당 정권수립을 위하여' 라는 논문발표- 太田 전총칭회장, 비판 의견서 제출- 實衛위원장, 太田의견서에 반론 - 동맹 中地회장, 노동전선 통일에 관한 견해발표- 통일논의 활발세김.</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명당 임시대회- 竹入위원장, 矢野서기장 선출</li> <li>- 경제심의회- 경제사회발전계획 (5개년간 성장률 연 8%)당선</li> <li>- 제2차 사드내각성립 (전각료 융입)</li> <li>- 사회·민사·공명 3당 정책협정 성립</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JC 상임간사회- 임금투쟁연락회설치 결정</li> <li>- 동맹 제3회 전국대회- 자본자유화, 산업재편신대책 결정</li> <li>- 동경지검, 日教組의 10.21.反職스트리이크로 官之雇 위원장등 3명 起訴</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경지검, 사회당 참의원 相澤重明 起訴 (공화제당사건관련 수회혐의), 사회당 불</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議, 國勞 등 3개노조에게 제3차장기계획을 위한 근 대화합리화안(5만명 합리화) 제시</li> </ul>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월	노동운동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 제명</li> <li>- 통일지방선거- 동경總知事로 사회·공산 양당이 추천한 美濃部亮吉 당선</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議 합리화반대투쟁 개시</li> <li>- 입정연 '장기안정임금' 구상 발표</li> <li>- 동맹, 총경에게 공무원제도심의회제개 협력 및 출석에 관하여 요구- 총경 同意</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네디라운드 (관세일관화)교섭, 주요국 (美·英·日·EEC)간에 타결</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JC, 임금투쟁연락회 처음 설치</li> <li>- 춘투 (이자나미 경기하의 춘투)- 중화학공업선투, 민간은 4월, 교동·공노협은 5월에 배치하는 전술취할 협상의 일반회담, 뒤이은 電機, 造船의 타결로 'JC 춘투'라 일컬어짐. 5월의 교동·공노협도 파업없이 끝남. 589만명 참가, 임금인상 4,371엔, 12.5%</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중동전쟁, 아랍연합 스에즈運河 폐쇄</li> <li>- 연사당 제9회대회- 西尾 사의표명에 따라 西村위원장, 春日서기장칙 신신행부 선출</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JC 제6회 확대협의위원회- 산업정책연구위원회 설치 결정</li> <li>- 자동차노련 鹽路회장 全額노조정의회 초청으로 訪韓 (동맹계 노조대표모시는 처음)</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協 자동차노조 (UAW), AFL·CIO를 탈퇴</li> <li>- EC 발족</li> <li>- 중국 총위병 수만명, 天安門·中南海에서 劉少奇를 타도시위</li> <li>- 공산당 野坂회장, 창립45주년기념식전에서 중국공산당 비판</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경 제36회 정기대회- 노동전선통일에 관한 原口 4원칙 승인</li> <li>- 동맹 中地회장, 총경의 4원칙 노동전선통일론 비판</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자본자유화 실시 : 제1류(외자주식 획득 50% 이내) 33업종, 제2류(외자주식 획득 100% 이내) 17업종</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화노련 太田위원장, 사회주의협회 沃原사무국장칙 '사회주의협회 재건위원회' 결성은 분업책임이라 비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장 山本幸一(佐佐木派) 선출</li> <li>사회당·총령동 7단체, 三浦縣공화당대공투회의 결성</li> <li>선진1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 국제流動性 대책으로 SDR(IMF특별인출권) 창출에 합의</li> <li>ASEAN 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全羅 原口위원장, 총령의 체질개선·민간노조의 대 산업별조직 재편성에 의한 노동전선통일에 관한 구체적 제안 발표</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三井三池三川광산에서 경비화제사고발생</li> <li>쇼텐 브레즈네프시카장, 모택동 主席을 반혁명자라 비판</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령, 정부에 공무원제도심의회 재개 및 총령과 정부의 정기회합 부활 요구</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제도심의회 1년 4개월만에 재개, 10.3. 제1차 公制審 임기만료로 폐산</li> <li>공산당 제5회 중앙위원회·「금입의 모택동노선과 국제공산주의 운동」(논문)의 발표승인, 모택동노선과 공화혁명론을 공격</li> <li>민사당, 齋田사건과 이에 대한 사회당의 태도 비판</li> <li>宮澤 경제기획청장관, 「宮澤構想」(공공요금인상중지, 감세중지, 쌀값통제, 공무원급이 일정액제상에 의한 비상예산편성) 발표</li> <li>자민당 齋田간사장 「임금인상은 생산상황을 범위내로 억제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표명(齋田 發言)</li> <li>취심회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반전대회(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서독 등에서도</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21. 국제반전대회, 학생과 경찰 충돌</li> <li>총령, 동맹, 「宮澤構想」에 반대성명</li> <li>임경련 임시총회에서 齋田전무이사 「공정한 제3차 기간에 의한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 강조·총령 동맹 반대성명 발표</li> <li>사토수상, 동남아시아방문 지지행동(제1차 齋田사건)- 齋田공합에서 三派系 全學總과 경찰충돌</li> <li>堀井 총령의장, 쇼텐과 동유럽 방문(10~11월)</li> </ul>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월	노동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전평화 집회</li> <li>사회당 사회주의이론위원회 (위원장 鈴木茂三郎), 「中斷路線」 천안 발표</li> <li>민사당 「일본 민주사회주의 학생동맹」(民社學團) 결성</li> <li>사토수상, 존슨대통령회담, 미일공동선언</li> <li>공명당, 노동조합결성위원회 설치, 노조조직 검토개시</li> <li>閣議, 미국원자력협정 일본기밀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처지입금심의회-총령추위회의 복귀로 1년만에 재개</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MF·JC의 임금투쟁에서 「1968년 임금투쟁을 위하여」 발표(이후 해년발표)</li> <li>國勞, 勤勞 합리화반대 투쟁</li> </ul>
196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존슨 대대통령, 달리방위에 관한 특별고사 발표</li> <li>미친자택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사세보 입항</li> <li>정부, 탄광이직자 취로대책사업의 3년간 연장을 결정</li> <li>사회당 제30회 정기대회-「일본에 있어서 사회주의에의 길과 1970년 투쟁」(中斷路線)을 결정</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령 감사회-엔터프라이즈호 기항반대투쟁방침결정</li> <li>엔터프라이즈호 사세보留港 반대투쟁</li> <li>동맹 제4회대회-장기입금제칙 특별회 제1차보고(제량경제적 수법에 의한 거시모델, 71년 목표년도) 신집행부회장 齋田實, 서기장 中枝琢己 등 선출</li> <li>동맹 齋田회장, ABO(국제자유노년 아시아지역조직) 의장에 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맹, 三派 全學總공동개최, 「2.26. 成田공화·砂川基地 실력분해 총결기 집회」(成田공화 반대투쟁 개시)</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神奈川縣 민간산업노동조합간담회 결성(37단체, 454 노조- 지방민간노동협의회는 처음)</li> <li>동맹 산업정책, 장기입금제칙 합동회의- 교총, 재정, 세제 등 7개전문위원회 설치, 섬유산업·화학산업 등 7산업위원회 설치 결정</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사당 제10회대회-「자주방위 5원칙」결정</li> <li>中日우호추진위원회정서 조인</li> <li>사회당 전국국민운동위원회 회의- 전국실행위원회를 개조하여 「호헌·반안보실행위원회」 설치 결정</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금공동조사센터」(총정, 총명, 중립노련, 신산, 별로 구성) 해산</li> <li>國勞, 勤勞 합리화반대 투쟁</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재실형성 간담회, 小川노동장관에 게 의견서(기업내 주택임금에 한하여 연리 9.8%를 인정할 것) 제출</li> <li>미입정부, 오가사하라請願 반환협정 조인(6월 복귀)</li> <li>최고집장, 三派 全學連에 대해 소란적처용 결정</li> <li>日蘇 무역협정교섭 타결</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公勞協 제1차 공동스트라이크 - 國勞, 勤勞, 全總, 全電通 등 시한부, 반일파업(4. 25.)</li> <li>춘투 (이어나기경기 3년이하의 춘투)- 3월말부터 역십노조가 파업을 선행하였고 4월상순에는 고액분위기 조성, 철강회담으로 일시 담보상태에 있었지만 사실은 고액에서 타결, 스트라이크다발, 580만명 참가, 임금인상 5,29%, 13.6%</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업구조심의회- 대청합병지시 포명</li> <li>베트남 평화에비회담 개최</li> <li>AFL-CIO, UNRRA를 제명</li> </ul>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경대학, 16년만에 경찰을 투입하여 安田장당으로부터 학생축출 (反代代水學 학생에 의한 대학분쟁 재유발생- 7. 2, 安田장당 재집거, 8. 28, 동경대 의학부 본관봉쇄, 9. 4, 일본대학 학원민주화 운동, 9. 25 동경대 문학부 봉쇄, 12. 14, 중앙대학 무기한 파업, 12. 25, 동경대분쟁 수습)</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國勞동경지부, 미군탱크차 증차계획에 반대하는 준법투쟁 (26~29일 증차 연기로 중지)</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회 참의원선거- 사회당 후퇴, 앨런드 후보 전향 당선</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全總 實衛위원장 「노동전선통일제론」(논문) 발표</li> <li>총정 總幹事장 「70년 안보투쟁에서 공산당과의 공투회치는 결성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li> </ul>

연월	노 동 정 세 및 정 세	월	노 동 운 동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련·동독군 재조침공- 재조침령군 철수 요구 (중국 朱恩來수상, 체코인민회 지할 지지 성명)</li> <li>경제기획청, 67년도 국민총생산 43조원으로 세계 제2위 시득과 통일수준이라 발표</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創價學會 池田회장, 「일본민주노동협회」(民勞) 결성에 대한 기본구상 발표</li> <li>동맹 重枝시시장 「노동전선동맹과 동맹의 역할」(논문)발표</li> <li>총정 제36회 정기대회- 單產위원장회의 설치확인, 國議 5만명 합리화반대투쟁결의, 신집행부 회장 羅丹利勝 (재선), 사무국장 嚴丹帝 재선</li> <li>「노동문제연구회」(勞問題- 철강노련, 全總, 全電通, 全總, 全總同盟, 海員, 電勞連, 電機勞連, 全生保, 新産別등 10노조시시장으로 구성)발족</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심의회 물가- 임금·소득·생산성 연구회 보고서 「물가안정과 소득정책」 발표 (飯谷 勲出)</li> <li>사회당 제31회 정기대회- 중앙집행위원 전향사입, 신집행부 인사조정이 비결되지 못한 채 휴회 (10월 재개)</li> <li>ILO사무국장 勳日</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L0 모스크바국장 방일</li> <li>國勞, 勤勞 합리화반대투쟁 (7,432명 처분, 이 가운데 세고는 25명)</li> <li>총정, 飯谷 勲出에 대하여 「입금공제의 위협성이 있다」는 견해표명</li> <li>동맹, 飯谷 勲出에 대하여 「소득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지명한 勞作」이라 평가</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존슨 미국대통령, 북북전면정지, 파리평화회담 참가를 발표함,</li> <li>사회당 제31회 정기대회 재개- 신집행부 위원장 成田知巳(신입), 시시장 江田三郎 선출</li> <li>제2차 공무원제도심의회위원 임명- 회장 前田義徳</li> <li>국제기독교 노련 제16회 대회, 국제노련(WCL)으로 개칭</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도노동조합(鐵勞) 결성- 新國勞를 단일조직으로 개조</li> <li>총정, 秋田 제2차통일행동 (10. 21 反戰국제통일행동), 反日共系 全學連이 新宿驛 집거, 방화, 소란죄로 913명 체포</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연사·공명 3당, 정부에 852機의</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춘투공투위 주최 「11. 17 物價 메이데이」(36개 都道</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끼나와 즉시 철수요구</li> <li>· 사회당, 총칭, 중립노련, 호헌연합, 부인회회동 50개단체 「안보조약반대,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국실행위원회」(反안보 전국실행위)결성</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府廳, 178개소)</li> <li>· 동맹과 AFL·CIO, 제1회 정기대회(이후 매년개회)</li> </ul>
196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끼나와 미국정부, 신중합노동포고(전軍務 노동자의 권리규제)공포</li> <li>· 닉슨 미대통령 취임</li> <li>· 자민당 제22회 정기대회- 대학에서의 폭력억제, 안보체제의 견지결정</li> <li>· 사회당 제32회 임시대회- 「1969년도 운동방침」결정(「안보체제파괴동지회」결성)</li> <li>· 동경대 봉쇄체제로 동경입대에서 학생·시민자 경찰 충돌</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끼나와 全軍務임시대회- 신중합노동포고령에 항의하는 2,4.총파업결정, 21~24. 총평·동맹·중립노련, 정부에 총파업회의 노력요청, 25. 미국민정부 동포고령 시행언기 불고, 총파업중지</li> <li>· 동맹 제5회 정기대회- 운동방침결정</li> <li>· 國勞·勤勞, 동경철도관리국 3분할 반대투쟁</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사당 제11회 정기대회- 「안보체제국민회의」설치결정, 신집행위원장 西村第一, 서기장 佐佐木良作 (신입)선출</li> <li>· AFL·CIO, 국제자유노련으로부터 탈퇴</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勞, 勤勞 합리화반대투쟁</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韓국경분쟁- 북경에서 대공포 反蘇시위</li> <li>· 八幡·富士 양재철소 합병계약 조인 (1970년 3월 新日本製鐵로 합속)</li> <li>· 제2차 자본자유화 실시- 제1류 누계 160억중, 제2류 누계 44억중</li> </ul>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공산당 9차대회 전체회의- 모택동주석 후계자는 임포 부주석이라 규정한 당규약 채택</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투 (이차나기경기 제 4년째까지 춘투)- 선행노조에 의한 高懸분위기, 파업다발, 590만명 참가, 임금인상 4,865엔, 15.8%</li> </ul>

연월	노동정책 및 경세	월	노동운동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보편징수법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28. 오끼나와반한 통일행동의 날- 反代代本派·反戰청년회와 경찰충돌, 國權 임시정지</li> <li>· 최고재판부, 都教組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정의행위는 부당성을 수반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제2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판결</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공산당, 노동자당회의 (일본공산당 불참)</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적업론연법 성립</li> <li>· 닉슨 폭력연 (아시아제국의 자주방위노력과 미국부담감각 방침)발표</li> <li>· 민사당·동맹·민사연, 「안보개정,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임」결성</li> <li>· 국제자유노련, 제9회 세계대회(브뤼셀)</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평 제38회 정기대회- 운동방침결정</li> <li>· 민간대기업 노조위원장 간담회 발족</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안정경제회의- 총합회의에서 경제성장보다 불가억제우선 의견일치</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日 무역자유화고집 타결</li> <li>· IMF, 세계은행중회- SDR 잠실결의</li> <li>· 세계노련 제7회 세계대회 (부다페스트)</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21. 反戰동일행동- 중앙에서는 사회, 공산당동일결의, 과격파학생 및 反戰청년회는 폭력행동</li> <li>· 國勞, 勤勞 합리화 반대투쟁 (처분 4,933명 가운데 해고 66명)</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정상 (사토·닉슨)회담, 공동성명(안보견지, 1972년 오끼나와 반환)발표</li> <li>· 중국 주은래수상, 미일공동성명 비난</li> <li>· 민사당 제12회 임시대회- 총선거 대책</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칭·중립노련 15개항 요구(1만엔 이상의 임금인상, 전국전산업 법률회제입금제, 감세, 불가동)를 11. 5. 정부에 요구, 11월 하순~12월 상순에 걸쳐 대중행동실시)</li> <li>· 총칭, 사토수상 방미항의, 11. 13. 스프라이크</li> <li>· 일경련, 「생산성기준원리」의 방침결정</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2회 중의원선거- 사회당 대패, 자민</li> </ul>		

	-공명-공산당 仲張		
1970. 1	·노동신장관의 개인적 자문기관인 産業勞 動懇話會 발족- 정부·노동자측·사용자 측·학식경험자 등의 賢人으로 구성, 의 장에 일본노동회의 中山伊知郎회장 선출 (이후 세월 1회 개최) ·中蘇對立 격화 ·제3차 사드內閣 성립	1	·全總 實務위원장 「70년대의 노동운동전진을 위하여 - 2년후를 목표로 노동전선의 통합을 실현하자」, 동맹 瀧田회장 「새로운 창조(70년대를 전망하면서) 」, 총령 巖井사무국장 「노동전선통일에 대한 우리 의 태도(巖井시안)」 발표 ·전국주요민간노조위원장 간담회(全民懇) 발족 (八幡製紙, 松下電器등 17개 노조위원장) ·동맹 제6회대회- 운동방향결정, 瀧田회장, 中枝시기 장 재선
3	·적근과학성에 의한 일본황궁기「요도호」 납치사건 발생		
4	·물가대책자문위원회- 공공요금억제, 경제 정책 건속강화방침 결정 ·경제심의회 「신경제사회발전계획」(고목 지, 고부담)당선 ·사회당 제23회대회- 전년12월선거 참패로 부터의 재건대회 성격, 집행부 재건 ·민사당 제13회대회- 「70년대대의 진전」 이라는 운동방향결정, 西村위원장 4選	4	·순투 (이차나기정기 5년배하의 순투) ·6월의 안보조약계정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전반적 으로 정치투쟁은 활발하지 못했고, 경제투쟁도 평 온한 가운데 전년보다 높은 임금인상으로 종료됨. 610만명 참가, 임금인상 9,166원, 18.5% ·4. 28.오미나와데이 (사회·공산당 1일 공통)
5	·미군, 캄보디아 침공, 북베트남 폭격재개 -중소가 비난성명 ·가내노동법 공포 ·근로청소년 복지법 제정		
6	·미일안보조약 자동연장 ·공명당 제8회대회- 중립을 고수하는 국민	6	·총령주최, 빈안보 6.23. 전국통일행동(안보투쟁사상 히대규모)

연월	노 동 정 책 및 정 세	월	노 동 운 동
7	·정당방침 결정 ·공산당 제11회대회- 당사상 최초로 공개 적인 「70년대의 전망과 당의 업무」(의회 중시, 적폐도론, 자주독립노선) 채택 ·공산당 제1회 중앙위 총회 - 집행행부 중 앙위리장 長野巖三, 간사회위원장 宮本 顯治, 서기장 不破賢三 선출 ·동경에서 光化學 스모그발생 (31일 중앙 공해대책본부 설치, 12월 공해대책관련법 안 성립)		
8		8	·총령 제40회 정기대회-「1970년도 운동방침」노동전 선통일 4원칙 결정, 의장 市川誠 (신입), 사무국장 大木正典 (신입) 선출
9	·제3차 자본자유화실시- 제1류 누제 447업 종, 제2류 누제 77업종	9	·동맹, 아시아 8개국 노조대표를 초청하여, 「경제개 발과 노조에 관한 심포지움」개회
10		10	·10.21. 국제안전통일행동
11	·사회당 제34회 정기대회-「1971년도 운동 방침」 劃中期노선제택, 위원장 成田知巳 (재선), 서기장 石橋政嗣 (신입)선출	11	·노동전선통일에 관한 「추진위원회(世話人會)」발족 (全總 顯口위원장, 철강노련 官田위원장, 全金製鐵 天池組合長, 電務連 前川회장, 電機노련 清田위원 장, 全機金 小方위원장)
1971. 1	·닉슨대통령, 限定北爆續行 표명	1	·동맹 제 7회 전국대회- 「개혁자로서의 참가와 창조 」라는 제목의 운동방침 및 統一추진위원회를 중심 으로한 노동전선통일 적극추진 등 결정
2	·민사당 제14회 대회- 아달대원성 (江田노 선에 접근), 중입국교회복을 강조하는 「71년도 운동방침」결정, 입헌재선	2	·노동전선통일 「확대추진위원회」발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당 · 총정 등 「中日국교회복 국민회의」 결성</li> <li>· 통일지방선거 · 동경도지사 선거에서 美濃部亮吉 재선, 大飯府지사선거에서 黒田了一 차승 당선</li> <li>· 세계노련, 「전아시아노조회의」 조직화 결정</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5. 통일행동 (오끼나와 全軍勞파업 지원행동)</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각국, 외환시장붕괴 (EC, 서독 마르크의 변동환율제 이행승인)</li> <li>· 고령자등의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10. 1. 시행)</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끼나와 5.19. 총파업(오끼나와 반환원정분쇄, 환전복귀)</li> <li>· 춘투 (경기후회와의 춘투)- 춘투공투 관민총공적 방식, 「모두 다 1만엔」을 내걸고 4월초부터 5월말까지 파업이 다반했던 장기춘투, 고비장(宇治編)실정에 관하여 萩織總連과 國勞, 勤勞의 의견이 대립, 춘투 참가규모는 683만명, 임금인상 9,727엔, 16.9%</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끼나와반환원정 조인</li> <li>·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 공포</li> <li>· 제9회 참의원선거 · 자민당 후퇴</li> <li>· 국제자유노련주최, 세계경제회의(제네바)</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정, 오끼나와 반환원정조인에 합의실명</li> <li>· 동맹, 동맹정에 대한 불만견해 발표</li> <li>· 총정 · 중립노련 · 오끼나와연맹 · 반안보전국실행위 (사회당계) 공동개최, 향의집회 및 시위</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청 발족 (공해행정의 일원화)</li> <li>· 7. 1. 일본섬유산업연맹, 대미섬유수출 자주규제실시 (12. 28. 美日 번제품협정 연장계약조인)</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정 제42회 정기대회 · 노동기본권 특별위 설치(파업연달한 특별위를 개조), 사회당 지지 · 협력관계의 검토개시 결정</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닉슨대통령 달리방위책 (금 · 달러교환의 일시정지등) 발표 (닉슨쇼크)</li> <li>· 긴급경제개혁회의 · 닉슨쇼크대책으로서 17일 연화경가견지등의 방침 및 27일 연화변동환율제 이행을 결정</li> </ul>		

연월	노동정책 및 경제	월	노동운동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주요국 변동환율제로 이행</li> <li>· 연사당 제15회 임시대회 · 酒村희원장 사 망에 따라 春日一孝를 위원장으로 선출</li> <li>· 제4차 자본자유화 실시 · 내가리브리스프 입중 및 제2류 누계 228입중 이외의 모든 입중은 제1류로 함.</li> <li>· 제3차 공무원제도심의회(公制審) 발족</li> <li>· 회장 前田義徳 일본방송협회회장</li> <li>· 노동성 생활비권간담회 발족 · 회장 大東 佐武郎</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전선통일 확대추진위원회총회 · 실천적 노동조합주의 등을 기점으로 하는 「통일전선에 관한 모의서안」을 확인</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총회, 중국유연가입 가결</li> <li>· 제3차 公制審, 제직전입중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답신</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1. 國除反戰대이 (제1차 전국통일행동)</li> <li>· 日経連, 생산성기준천리 발표</li> <li>· 國議, 생산성운동반대투쟁-국철당국, 1970년 가을 이후 적자재정 재건계획추진을 위하여 간부연수회 개최, 직원에 대한 생산성교육실시 (이른바 '마루생' 운동)- 國勞, 勤勞 公勞앞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제출, 공노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li> <li>· 總評 · 國勞 · 勤勞, 110에 「마루생운동에 의한 차별 · 단결권침해에 관한」 제소</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의원 본회의, 오끼나와 반환원정비준안 건 강령제결 · 사회 · 공산 양당 불참.</li> <li>· 12.29.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li> </ul>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국 재무장관회의, 다국간 통화조정합의 · 1달러=308엔, 금가격 1온스=35달러등 결정</li> <li>· 國議, 연화결상 (1달러=308엔), 경기부양책실시등 결정</li> </ul>		
197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닉슨대통령, 사도수상 회담, 공동성명</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議 제8회전국대회 · 「인민군중 · 복지사회의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5. 오기나와 반환) 발표</li> <li>· 자민당 제26회대회-GNP노선으로부터 고독 지노선으로의 전환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동방침결정</li> <li>· 사회당 제35회 정기대회-「호헌·민주·중립·생활향상」의 국민연합정권수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방침결정</li> <li>· 닉슨·모택동 회담, 공동성명발표</li> <li>· 민사당 제16회대회- 혁신연합정권구상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방침결정</li> <li>· 社·公·民과 日중국교축진의현연명, 「日中國交回復促進連絡會議」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라는 제목의 운동방침결정, 신김영부회장 天地清次, 시기장 前川一男 선출</li> <li>· 地方民勞協全國連絡協議會(전국연노협) 결성</li> </ul>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物價에이대이- 순무공투위 주최, 「물가인상에 반대하여, 생활과 권리를 지키는 72년 순무총궐기집회」</li> <li>· 노동전선통일인간단상연락회의(統一連絡會議) 최초 모임 (3.11.)</li> </ul>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무공투위, 건강보림법제약단체 통일행동일(2번째 동맹파업)</li> <li>· 순무 (영화집상에 의한 스테그플레이션하의 순무)-원민총공적방식, 교통·公勞協이 48시간의 동맹파업 실행, 민간노조의 4.20. 두번째의 동맹파업, 4.27.의 교통·공노협의 동맹파업, 참가인원 599만명, 임금인상 10,138원, 15.3%</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오기나와施政權 일본에 반환- 오기나와縣, 오기나와개발청 발족, 6.25. 지사선거에서 혁신공투회회가 추천한 厚良 朝綱 당선</li> <li>· 닉슨대통령 방소, 공동성명발표</li> <li>· 노동안전위생법 제정</li> <li>· 근로부인복지법 제정</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단체에 의한 통일실령위 주최, 「越도 基地도 없는 오기나와 전면반환, 자위대 오기나와 배치, 군사기지 강제수용반대, 미국의 베트남 해상봉쇄규탄, 일본으로부터 베트남 출격반대」 5.15. 집회</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니마(田中) 풍산상, 「일본업도개조론」</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勞·勤勞, 중재제정 환전심의를 요구하는 준립투</li> </ul>

연월	노 동 정 책 및 결 세	월	노 동 운 동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표</li> <li>· 자민당 제27회 입시대회- 田中角榮, 후쿠다 (福田赳夫) 결선투표에서 田中角榮을 총재로 선출</li> <li>· 제1차 田中내각 발족</li> <li>· 국제자유노련 제10회 세계대회 (인연)</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 (6.13.~16.)</li> <li>· 海興綜合 임금쟁의해결- 4.14. 파업돌입, 7.11. 佐佐木운수상의 중재에 의해 해결, 7.14. 파업종지</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업도개조문제재간담회 발족 (90명)</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평 제44회 정기대회- 「1972년도 운동방침」, 노동전선통일에 관한 7남집 결정</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닉슨- 다니마 회담, 日중국교정상화와 美日안보체계의 관련에 관한 공동성명발표</li> <li>· 일중정상 (田中·모택동)회담, 일중국교정상화에 합의, 공동성명조인</li> </ul>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경외환시장에서 달러에라해도 (대외경제추진 각료회의에서 수입확대등 제3차 연화대책 결정)</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公勞協, 순무치분 및 마루생동과 관련하여 ILO에 제소</li> <li>· 10.21. 국제반전대이</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리원 해산</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牟婁에이대이- 총평·중립노련 공동개회 「연금·제도요구확충 중앙 大행동」</li> <li>· ILO사무총장, 공노협의 순무치분·마루생에 관한 제소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노동측 최고수준에서의 협의를 제안함 (총평, 정부 모두 제안수락)</li> <li>· 동경고용법원, 에이대이사건으로 소란회가 성립한다는 1심판결을 파기 - 100명의 피고 가운데 84명 무죄판결 (20년 7개월만에 무죄판결)</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3회 중리원선거- 공산당선장, 민사·공명 당당 투표</li> <li>· 제2차 田中내각 성립</li> </ul>		
197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남북베트남, 남입시혁명정부 평화</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 제9회 정기대회- 「삶의 보람이 있는 사회로의</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정에 조인</li> <li>확대 EC발족</li> <li>사회당 제36회 정기대회- 국민통일강령초안, 조직대진 5개년계획등 결정</li> <li>마르크와 投機를 계기로 유럽시장에서 달러제각급중, 환시장혼란- 런던, 파리 환시장 제재, 미달러 10%절하 결정 (3.19, EC 6개국 공통변동환율제 이행)</li> <li>유럽노련(ETUC) 결성(브뤼셀)</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혁, 복지노선의 추진을 책임진다」라는 제하의 운동방향결정</li> <li>2.10.파업권탈환 동맹파업- 공노협 반일파업, 공무원공무 시한부파업</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화 민중환을제로 이행</li> <li>문화혁명후 처음으로 중국노동자대표단, 총칭 초청으로 訪日</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중립노련, 「동남아시아 노조회의」 개최</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의, 대내적집무자자유화조치 결정- 자본자유화 10% 5. 1. 실시</li> <li>민사당 제17회 대회- 복지국가정당에 접지하며 좌우 견제중의와 대결한다는 운동방향결정</li> <li>민사당, 공노협파업은 위법이라는 성명발표</li> <li>공명당, 5.15.통일학생중앙집회 참가결정 (원희공부 최초 참가)</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의 「연금파업」- 4.17.~20. (정치파업으로서는 전후최대규모)</li> <li>춘부 (호황, 물가고래의 춘부)- 「대륙 임금인상, 데다 「연금, 파업권」 등의 정치적 요구가 위의 전개됨 4.17. 최초의 「연금동맹파업」을 거쳐 4.27.~28.의 교동관계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동맹파업으로 대규모의 고비를 맞았으나 罷業의 중노위 할선안에 의해 해결, 정부와 춘부공부위간의 「政勞會談」 (파업권, 치분문제 등 「7항목에 대한 합의」)에 의한 공노협의 파업수습등으로 고비를 넘김. 國勞·勤勞의 중립투쟁에 의한 「上尾事件」, 「수도권 國電事件」 발생, 춘부참가인원은 611만명, 임금인상 15,159명, 20.1%</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사·동맹·전국민노협, 「소선거구제 문제 1만명 집회」</li> </ul>

연월	노 동 정 책 및 정 세	일	노 동 운 동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웨덴 브레즈네프서거정 발의, 미소정상회담, 핵전쟁방지협정등 조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학생위, 5.15. 전국통일학생중앙집회(오기나와 여운까지 철수, 소선거구제반대등)</li> <li>사회·공명·광산·출생, 소선거구제 문제 대표자회의</li> <li>민사·동맹등 8단체, 소선거구제 문제연락회의 결성</li> <li>天淵회합 등 동맹대표단, 최초로 소련방문</li> <li>IMF·EC 유럽시일단 발소</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수복금지운동 통일총서업- 4월 공산당, 사회당에 「원수복금지운동 조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협서」 제안, 7월 사회당승락 회담</li> <li>다니아수상 발의, 지은·다니아회담- 이 일일초 18항목의 공동성명발표</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3회 노동전선통일연간단련학회의(7.13.)-출생·동맹의 대립으로 통일연락회의에서의 대화불가능을 확인하고 해산</li> <li>중성 제46회 정기대회- 운동방향, 換圖방향결정, 사회당 지지결정</li> <li>「다국적기업문제대책 노조연락회의」 발족</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공산당 10월대회- 소련을 수정사회제 악수죄라 비판, 신당창당 채택, 일교·진해당 등 원구제당 결정, 제10기 1차총회-모세동수서 해산</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성 改進黨대회- 공적측의 요연에 불인해로 표명</li> <li>全國總勞協회합- 인간신생, 통일을 위한 활동합의</li> <li>좌익노협 결성</li> <li>國勞·勤勞, 1962년 9월 이후의 경제행위에 대한 치분에 불허하는 중립투쟁 (8.4.~8.)</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제도심의회 단선- 경제면에 관한 3가지 논의를 實施</li> <li>공무원문제연락회의 설치 (춘부장연구자, 구성원은 춘부장연구, 대장·공부·농업·통신·운수·우정·노동·과적·행정관리 등의 각 사무차관)</li> <li>공명당 대회- 중도혁신연립정권수립발결</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國勞·勤勞, 지분단체- 운전보안특별투쟁 9.26. 노조수뇌회담에서 심야교대, 안전설비등에 대한 합의 성립</li> </ul>

10	<p>경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중동전쟁 (이집트·시리아 양군과 이스라엘군 교전)</li> <li>· OPEC(아랍석유수출국기구) 긴급각료회의, 석유생산 삭감과 공급제한(석유전당) 결정(제1차 오일쇼크)</li> <li>· 세계노련 제8회 대회</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1, 국제반전대이</li> <li>· 동맹, AEO 「다국적기업에 관한 아시아세미나」 개최</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당 제12회 대회- 70년대에 민주연합 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대회결과와 「민주연합 정부강령에 관한 일본공산당의 제안」 채택 (폭력혁명을 강제혁명, 노동자 독재를 노동자집권으로 결정).</li> <li>· 정부, 긴급식육대책본부설치- 「식육 긴급대책요강」 결정</li> <li>· 제2차 다나카 게츠네카 발족- 田中수상, 일본임도계조구상을 가속시켜야 할 것이라는 등의 소신발표</li> <li>· 각의, 1973년도 GNP예상을 10.7%에서 6%로 수정</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노조 공동행동회의 결성</li> <li>· 풀가게이데이 (준투공투위 주최, 총정력闘 제4차 통일행동)</li> <li>· 노동4단체 서기장· 사무국장회의 - 사회당이 제창한 8차공투문제에 관하여 4야당은 원내공투, 노동4단체는 공동행동확인.</li> <li>· 다국적기업 노동문제연구회의 (노동성과 다국적노조회의간 협의의 場) 발족</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육 2법안 가결</li> <li>· 정부, 「식육 긴급시제」 고시</li> <li>· 「과업규제법본제조사회」 발족</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노협 임시임금투쟁- 공노협 각노조는 당국에 「생활위기를과임시임금」을 요구. 11.21, 공노위에 조정신청. 공노위, 「연말수당의 0.3개월분을 12월 말 당겨 지급한다」는 조정안 제시, 발방수락 과업중지</li> <li>· 민간노조공동행동회의- 노동4단체에 인플레이와 오일쇼크에 대처하기 위한 통일행동전개와 실행위원회의 조기설치를 요구</li> </ul>

연월	노동정책 및 경세	월	노동운동
197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總賃上げ기재언- 프랑스는 EC의 공동변동환율제로부터 이탈, 프랑화의 단독변동제로 이행</li> <li>· 사회당 제37회 정기대회- 진야당에 의한 국민연합정권수립을 목표로 하는 「국민동맹강령」, 당건설 5개년계획을 결정</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 제10회 전국대회- 「인플레이분쇄, 복지사회로 도진」이라는 제하의 1974~75년도 운동방침결정, 天地·前川 再選</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물가대책본부」 설치</li> <li>· 연사당 제18회대회- 혁신연합국민정권구상의 反자민, 反공산당이라는 운동방침결정, 塚本서기장 선출</li> <li>· 정부, 생활보호세대 1인당 2,000원의 특별수당지급, 실직에 직면한 노무자에게 3일간 의 위보를 인정시켜 주는 긴급조치 결정</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4단체 공동주최, 「인플레이분쇄, 생활위기를과 공동집회」</li> <li>· 日経連, 「이번 춘투에 임하는 마음자세」(제2차) 발표- 총과업 비판</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식육제품가격대폭인상과 생활관련물자의 가격동결 결정</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원, 기업수당특별감정정치 권고 (74년도 기업수당 0.3개월분 증액)</li> <li>· 공정거래위원회, 유리병 제조업제 부정카프텔합의로 조사</li> <li>· 동경고집, 식육 부정카프텔로 식육언명 및 판매자인 12개사 시장을 配斷</li> <li>· 세계노련 제9회 세계대회 (프리카)</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투(정리물가하의 춘투)-춘투공투위는 「국민춘투」라 이름 붙이고, 4월중순에 교통관계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전후 최대규모의 동맹파업실시(13일 정부와 춘투공투위간에 노동기본권문제 등에 관한 5항목의 양해사항에 합의함으로써 과업중지), 경제적으로 정지적 색체가 강한 춘투로 됨. 참가인원 622만명, 임금인상 28,891엔, 32.9%로 금액과 인상률에서 戰後 최고수준, 日経連- 노사휴전, 기업방위 제창</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教團法制化法 가결시립 (9.1, 시행)</li> <li>· 공공기업채용 관계각료회의회 최초 회합 (과장: 官團長官)- 노동기본권에 관해서</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교원조합, 교투법제와 반대투쟁 - 5.22, 참의원 분교위 자민·연사당당, 동법단 강행가결, 23일 협조 동법단 분회 및 형사탄압반대로 아결 1시간과</li> </ul>

	1975년 가을을 시한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		입, 27일 동법안 참의원에서 가결상립, 6.11. 경시청에서 인교조 진척위원장을 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체포, 13. 동경지검, 동위원장 등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
7	· 제10회 참의원선거 - 보수·혁신 의석차 7석, 투표율 73.23%로 사상 최고 · 미에(三木) 부총리, 黨근대화에 참의되어 사립, 福田 彌爾, 保利 行憲總장관도 사립(三木·福田회담에서 당재정개선에 의견일치)- 田中수상의 금전제정에 대한 비판高調	7	· 國勞·勤勞, 신간선확장에 따른 노동조건개선등을 요구하며 신간선을 중심으로 한 준법투쟁 전개(27~28일)
8	· 닉슨 미국대통령 사임, 포드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 (워터게이트사건) · 기업제연속특과사건 - 8.30. 三浦중공업법정, 10.14. 三井물산본점, 12.10. 大成건설본사법정 시한복판복발	8	· 총리 제48회 정기대회- 의장 市川誠, 사무국장 大木 正五 3선 · 절강노련 宮田위원장, '75년 춘투는 경제성장에 맞추어 실업률감 상상을 목표로 하는 투쟁으로 전환' 한다는 발언 (입금자숙론)
10	· 공공요금 인제연상	10	· 10.21. 국제반전대회
11	· 田中수상, 金鵬문재에서 위법, 탈법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정치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사퇴포명 · 포드 미국대통령 방일	11	· 11.19. 동영리업- 다니카내각타도등 목표
12	· 다니카내각 총사직, 中參 兩院본회의에서 自民黨 三木武夫총재를 수반으로 지명 · 三木신내각 성립 · 사회당 제38회 정기대회- 신집행부위원장 成田知巳, 사기장 石橋政嗣 선출 · 고용보험법 공포 (1975년 4월 전면시행)	12	· 三木수상, 노동4단체 대표와 인플레이-물가문제를 중심으로 한 의견교환

연월	노동정책 및 정책	일	노동운동
	· PTTI 세계집행위원회 (동경)		
1975. 1	· 중국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 재정헌법 채택, 국가체제를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의 사회주의'라 규정 · 노동성, '입시고용대책본부' 설치 · 자민당 제30회대회- 三木 새총재를 추인	1	· 동영 제11회 전국대회- '1975년도 임금투쟁' 방침통결정 · 임경연, '임금고심의 기초자료' 발표- 대기업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본 준제임금인상문제에 관한 의견' (임할력이 강한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15% 이하로 압수하여 주기 바람)을 요망
2	· 경제대책 각료회의- 중소기업·주택관련 출자 원활화, 재정지출 탄력적 운용, 감항생산자금의 배려등 10항목의 불황대책 결정 (제1차 불황대책) · 기업제연속특과사건 - 2.28. 關組본사와 大宮공장, 4.19. 동경-銀座-尼崎市 한국연인기업, 4.27. 市川市關組, 5.4. 京成전철 江戸川철교공사 關組현장에서 시한복판복발 · 민사당 제19회 대회- 春日위원장, 塚本시 기장 재선	2	· 주요인간단상 시기장급 간담회 발족 · 노동4단체, 정부에 '전국일을 최저임금제 확립을 위한 통일요구서' 제출
3	· 경제대책지표회의- 공공기업의 원활화등 12항목의 불황대책 결정 (제2차 불황대책)	3	· 춘투공투위, 최저임금제·경제정책·고용대책으로 3.27파업일정 (26일 정부처 고용보장등에 관한 회담으로 파업회피)
4	· 월남 무조건 탈북 · 통일지방선거- 동경 23특별구에서 24년만에 區長 公選부활 · 현수복급지순중 통일유치업 활발	4	· 전국급속, 임경연에 임금인상억제방침 철회요구, 임경연의 회답에 불만이 있어 東京總勞委에 '임금인상억제지도'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5	· 직업환경측정법 제정	5	· 國勞, 勤勞 차분면대투쟁- 31일 국철당국, 1974년 이

	· 육이휴업법 제정		후의 정의행위로 9,889명(세고 19명) 처분발표 · 순투(스태그플레이션하의 순투)-순투공투위는 대폭 임금인상을 내걸었지만 동맹, IMF·JC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여 임금인상저속을 내걸. 임금투쟁은 4월의 통일지방선거를 사이에 두고 칠강노련·조선중기노련 등의 주요연간단산이 4월, 교통·공노협이 5월로 양분되었으며 5월의 교통총파업은 전년에 이어 대규모로 진행되었음. 순투규모는 650만명, 임금인상 15,160원, 13.1%, 금액과 인상률 모두 전년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서 순투재구축 논의가 활발해짐.
6	· 경제대책자교회의-주력건설축진, 공대방 지주지주진등의 불황대책결정(제3차 불황대책) · 靑谷川 노동성장관, 중의권 사회노동위에서 「파업과 처분의 악순환은 이번으로 그치고 싶다」는 취지는 발언 · 경제기획청, 1974년도 GNP성장이 전후 최초로 마이너스라 발표	6	· 총평과 산하 27單處(합화노련, 칠강노련 제외), 1975년 순투시의 임경연·關西經協의 「임금인상억제지도」에 대하여 동경經勞委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공노협, 파업치분반대투쟁- 5.27.의 파업에 대한 처분 발표로 6.9. 동맹파업(1주일 이상) 결정. 6.3. 파업권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평가하여 동맹파업회피
7	· 공산당, 「制價學會와 일본공산당의 합력에 관한 협정」(10년협정- 1974.12.28. 협정)발표	7	· 총평 제50회 정기대회- 운동방침-추계연말투쟁방침 결정
8	· 三木수상 방미, 미일정상(포드, 三木)회담. 공동성명(한국의 안전과 안보조약견지) 발표 · 三木수상, 「생활실체계획」(라이프사이클) 발표	8	· 동맹, IMF·JC, 「노동자의 생애생활비전」 발표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월	노동운동
9	· 경제대책 자교회의- 총사업비 2조원 추가 투입이라는 불황대책 결정 (제4차 불황대책)	9	· 중립노련-신산별은 총평·동맹에 대하여 연금·고용에 대한 노동4단체 共同제구속을 요청 (11.4. 4단체 共同확인) · 동맹, 「아시아노조심포지움」 개최 · 公勞協, 파업전문계 지원요청을 위해 IL0-ITS 등에 대표단 파견
10	· 연사당, 2公社 1現業 (國鐵, 電電, 郵政) 조전부 파업권 부여결정 · ICFTU, PSI등 일본 반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 국제자유노련 제11회 세계대회(멕시코시티)	10	· 10.21. 國除反戰대미 · 총평 제51회 임시대회-「파업권파업」체제확립
11	· 세계경제에 관한 6개국 정상회담- 불황극복에 대하여 국제협조합의 · 공공기업제정 관계각료회의회 전문위원간담회 「3公社 5現業」의 본래적 성격과 노동기본권 문제에 관하여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 · 정부, 파업권파업 중지요청 성명발표 · 선진국 정상회담 최초개최 (프랑스) · 미국, IL0담차 붕괴 (2년후 발표)	11	· 공노협·공무원공투 파업권파업 - 「파업권의 명확화」를 요구하면서, 공노협을 중심으로 11.26.부터 8일간 파업실시
12	· 관계각료회의, 임시각회-전문위원간담회 의견서를 받아들여 「3公社 5現業」 등의 노동기본권 문제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방침」 결정 성명 · 포드 미국대통령 중국방문, 美中정상회담 · 미중관계의 정상화	12	· IMF, JC 제18회 전국협의회- 「국제금융노련 일본협의회」를 「전일본금융산업노조협의회」로 명칭변경, 국내공투강화방침 결정

197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閣議, 「공공기업채용 관제각료협의회」를 폐지하고 새로이 법무성장관을 포함시켜 새로운 「공공기업채용 관제각료협의회」(신각료협)설치결정</li> <li>- 공산당, 宮本위원장의 간첩수사사건으로 정부에 대하여 추궁 (9.28. 법무장관조사결과 발표)</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 제12회 전국대회-「새로운 시대의 도전」이라는 제하의 「1975~76년도 운동방침」등 결정</li> <li>- 입경연, 임금인상가이드라인 한자리로 결정 (입금배서)발표</li> <li>- 노동4단체, 고용문제에 관하여 4단체 공동확인(4.8. 대정부요구 제출)</li> <li>- 國勞, 勤勞 처분반대투쟁- 31일 당국, 1975년 가을의 파업권과임금으로 5,405명(세고 15명) 처분 및 202억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2.1.~27. 國勞, 勤勞 처분반대로 준법투쟁</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상원회의고위 다국적소위- 록히드사회의 공작 밝혀냄 (록히드사건의 발달)</li> <li>- 야당각당, 중의원예산위에서 록히드사건을 추궁</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경, 록히드사건에 대한 항의행동</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당 제39회 대회- 록히드사건 추궁등 결의</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사당 제28회 대회- 신거대제</li> <li>- 중국 천안문사건 발생- 북경 천안문광장에서 故 주은래수상의 追悼花圈 집거를 계기로 수만명의 군중과 군대충돌</li> <li>- 정부, 광안물가시의 예결방지법 대상 15개 품목 전부해제</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투 (안정성장 2년째의 춘투)- 노조측은 임금인상 요구를 전년수준이하로 억제하고 실질임금증시라는 입장에서 고용, 감세, 연금, 물가 등의 정책요구를 적극적으로 들고나옴. 임금인상투쟁의 고비장에서는 官民 동시 진출배치. 4.14.의 급속노협 4團에의 회답이 춘투상장을 형성하여 「JC주도」의 춘투로 됨 (전기노련은 1976년부터 JC대열에 참가) 4.20. 사철 종연-공노협 72시간 동맹파업 실시, 규모 658만명, 임금인상 11,596엔, 8.8%</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민당 權名부총재, 田中 전수상·大주대</li> </ul>		

연월	노 동 정 책 및 정 세	원	노 동 운 동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상·藤田부총재와 각기 회담 (三木외진이 당내대세라 판단입치)</li> <li>- 경제심의회- 신경제5개년계획 (성장률 8% 넘음) 승인</li> <li>- 임금제상화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li> <li>-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li> <li>- 제1회 미·일·캐나다 급속노조회의(이후 매년 개최)</li> <li>- 신자유조합 결성 (자민당을 탈당한 河野洋平 6명)</li> <li>- 신진 7개국 정상회담, 三木수상 귀국중 포드대통령과 회담</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업채용 기본문제회의 전문위원 97명 위촉, 경영형태, 당사자능력, 법외판례의 각 건담회 설치</li> <li>- 공산당 제13회 대회-「플로레타리아트집권」실제, 「미르크스·레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로 개정</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경회의 27團, 입경연·關西經協을 상대로 한 1975년 춘투에서의 부당노동행위사건 (1975년 6월 동경도노위에 신청)에 대하여 양단체와 화해협정에 조인함</li> <li>- 총경 제53회 정기대회- 신집행부, 외장진枝完文 (日教組), 사무국장 高塚三夫 (國勞)선출</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민당 反三木派(三木·中會派 불합), 양원의원총회합동 「임시국회이전」당태신, 결의</li> <li>- 동경지검, 田中角榮전수상을 수탁수뢰죄 및 회관법위반으로 기소</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노련·철강노련·자동차총련·조선중기노련·겐켄동맹·순출동맹 등 10團에서기장, 「노동문제연구회」제발족 확인</li> <li>- 진枝 총경외장, AFL-CIO회장과 회담, 관계개선노력하기로 합의</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三木개조내각 발족- 藤田부총리·大주대 장상등 유입</li> <li>- 제1회 아시아 고동세미나 개최 (제2회는 1980년, 중국불참)</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노협 중재재정 환전실시요구투쟁- 9.16., 9.29.~30. 파업실정, 27.공노협과 정부간 3개월목 합의실업으로 파업중지</li> </ul>

10	· 중국, 강청둥 4명 루데타 기도로 체포감금, 화국봉주서 취임, 4人體 反黨집단분쇄작과 100만명 대집회	10	· 정책추진노조회의(16華産· 전국민노협으로 구성, 350만명) 결성 · 「국민순무공무회의」 발족 (순무공무위원회를 명칭 변경)
12	· OPEC, 원유가격을 2분위로 하여 가격인상 실시 · 제34회 중의원선거- 자민당 대패, 공명·민사·신자유클럽 신장(보혁 핵중세)·三木내각 총사직, 제79회 임시국회에서 자민당 福田총재를 수반으로 지명 · 福田내각 성립		
1977. 1	· 미국 제39대 대통령에 민주당 제임스.A. 카터 취임 · 록히드사건 1차 공판	1	· 총정·동맹·중립노련·신산협 등 노동4단체, 정부에 경제·물가·고용·1조연감세등의 요구와 노동기본권에 관한 「政勞交渉」 원칙의 확립요구 · 동맹 제13회 전국대회- 「1977년도 임무방침」 등 결정
2	· 사회당 제40회 정기대회- 정권구상을 중심으로 좌우의 대립격화, 全野黨共闘를 바탕으로 하는 신운동방침결정, 人事에서 反협회파 제배, 주름파(좌파) 우위로 成田·石橋체제 계속됨	2	· 국제화학에너지 일반노련 일본가맹조합협의회(ICEF·JAF)결성
3	· 미·소, 200세리 이입전편수여실시 · 1조연 감세문제로 5야당 (사회, 공명, 민사, 신자유클럽, 공산당)의 공동보조성립, 추가감세 3,000억엔과 還給, 연금의 2개월분 추가지급(628억)의 예산수정으로	3	· 「77년 임무대책 민간노조회의」(11단산참가) 발족 (이후 매년 순투시 발족) · 「ICFTU 일본가맹조직연대협의회」 설치

연월	노동정책 및 경제	일	노동운동
	· 여야당 타협성립 · 자민당 福田派(八日會), 三木派 (정책동지회)의 해산으로 기존파벌 모두 해산 · 민사당 제21회 대회- 운동방침, 정책대강 결정 · 사회당 江田부위원장 탈당, 「사회시민연합」 성립을 표명함.		
5	· 신동경국제공항공단, 광주로남단의 철합 예고있어 철거, 기동대와 반대파 격돌로 2명 사망 · 原水閣(사회당·총정계)과 原水協 (공산당계), 조직통합에 합의, 통일세제대회(8월)차인 · 노동단체 정상회의 최초개최 (연년)	4	· 국철당국, 운수성에 「국철정영개선대책」(5만명 합리화·최물식감등) 제출, 國勞·勤勞 합의성명 · 순무(경기준미하의 순무)- 3월 후반의 순무공무회의의 지역파업을 시작으로 선행노조의 투쟁, 위이어전년과 똑같은 「집중결정」방식을 위한 JC 4華産에서 13일 13,000~13,100엔의 회당이 제시되어 罷場을 형성함, 사흘총연 4.16, 파업을일후 13,300엔에서 좌주해결, 공노협 4월 후반에 공노위의 조정위원장 견력에 따라 수습됨. (일정연 - 임금인상 실질경제성장률기준 제정), 규모 675만명, 임금인상 12,536엔 8.8%
6	·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해체- 23년간의 활동 종료.	5	· 최고재판소, 나고야 中野사건에 판결- 공노법 제17조의 생리행위금지하는 합헌, 유죄판결 · 노동4단체대표 소련방문, 日蘇 이업교섭의 조기해결 요청
		6	· 일본심음산업회의(건설동맹과 방직협회·화학협회 등 경영자단체로 조직), 특정물참입종이직자 임시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福田수상, 구조불합업중에 대한 장·단기 종합대책의 추진지시</li> <li>· 과업규제법조사회, 노동성장면에 전격 사업의 과업규제에 대하여 「당면 현행대로」 라는 중간보고 답신</li> <li>· 제11회 참의원신거- 保革機關 불민</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법의 재정중 섬유산업위 돌파를 위한 임시조치요구 결정</li> <li>· 총경 진철의장, 사회당개혁에 대한 총평의 통일전례 발표- 協會派를 「黨中黨」 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反協會派에게도 반성요구</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공산당 제11회 전국대표자대회- 화국 봉주식 취임을 지지, 제1차 문화대혁명 종결을 선언함.</li> <li>· 원수복금지통일세계대회 국제회의개최 - 14년만의 사회-공산당 통일대회, 31개국 14국재조적대표 참가</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화노련·화학동맹 일반연합(舍化·化同總連)결성</li> <li>· 총경 제55회 정기대회- 연합의 시대도래라 판단하여 反자민통일전선 형성, 국민준부노선의 강화를 기초로 한 운동방침 결정 (운동방침에서 「反團占」 이라는 문구삭제)</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당내의 대립- 7.26. 反협회가 3개파를 중심으로 하는 당개혁추진그룹, 당개혁안(協會 배제를 주장)을 발표하고 당개혁추진그룹준비회 결성, 28. 당개혁위에서 사회주의협회의 내부지도 제출문제로 양파대립, 협회 向坂逸郎대표 「협회는 이론집단」 이라는 입장표명, 9.3. 총평 진철의장의 협회개혁안(이론연구집단으로 합정)에 대하여 총경과 협회가 합의</li> <li>· 사회당 제41회 정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개혁 3개 안건 승인, 신정행부선출로 난항, 熊島田요코하마시장 위원장 불출마 표명, 成田·石橋집행부 차기 대회까지 계속.</li> <li>- 「새로운 흐름의 모임」 중崎彌之助 중</li> </ul> </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에너지 노동조합협의회(화학에너지노협, 대회발표 55만명) 결성</li> </ul>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월	노동운동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 田英夫, 養豊참의원 사회당 탈당</li> <li>· 사회당 舊江田派, 파벌해체선언(3일)-11. 9. 藤岡田派, 20. 佐佐木派, 12. 4. 3月會 각각 똑같은 선언</li> <li>· 「사회시민연합한국조직」(社民連) 결성</li> <li>· 공산당 제14회 대회- 袴田부위원장 실각</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4단체, 정부에 구조불합업중 이직자대책임시조치법 재정중 고충대책 요청</li> <li>· 구조불합업중 노조연락회의(결성, 조선중기노련, 철강노련, 전일본알루미늄노협 등 10團體로 구성), 노동성에 이직자대책임시조치법의 재정중 당면한 고충대책 요청</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불합업중 이직자대책 3법안, 이야의원의 공동입법으로 하여 제82회 임시국회에 제안 (제기됨)</li> <li>· 福田계조내각 반족</li> <li>· 민사당 제22회 대회- 春日위원장의 사임을 승인하고 佐佐木위원장 선출</li> <li>· 미국, 110달러</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 중립노련- 신산행시기장, 사무국장회의- 제82회 임시국회의 최종단계에서 총평이 급전하여 특정불합업중 이직자대책임시조치법안 반대로 동법안이 제기됨에 따라 총평의 배신행위를 비판, 노동4단체 共同가 애경.</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불합업중 이직자대책법안(~'83), 국철은입법정제 완화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제83회 임시국회에서 가결실업</li> <li>· 사회당 제41회 정기대회 속개대회- 국회위원의 대회대회권 부여, 위원장 공천제등 당규약개정 결정, 신정행부위원장 熊島田一雄, 시시장多賀谷眞명 선출</li> <li>· 중앙회입심의회- 금후 최저임금의 방향에 관하여 답신 (1978년도부터 목표제시)</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재판소, 都教組사건에 대해 판결- 정의행위금지 규정은 합헌, 징계처분은 적법.</li> </ul>
197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당, 袴田晃夫부위원장 재명</li> <li>· 공명당 제15회 정기대회- 「중도국민전선」 결성등의 활동 방침결정, 민사당 春日</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 제14회 전국대회- 「불합업중, 고충보장, 사회적공정의 실현, 정치노선의 전환을 요구하며」 라는 제하의 「1978.79년도 운동방침」 결정.공명당 竹入위원</li> </ul>

<p>위원장 내빈으로 처음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동상공회- 미일경제야합 입단 세력</li> </ul>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수상 화국 봉주석 유입, 부수장 상소경중 선출, 신 헌법 채택</li> <li>· 閣議, 국가공무원의 주휴 2일제 시행 (1년간) 결정</li> <li>· 사회주의협회총회-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집단」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연구하는 집단」으로 개조, 중앙상임위원회 결정</li> <li>· 日中 장기무역협정조인(8년간 총액 200억 달러 무역)</li> <li>· 永大산업도산- 부채총액 1,890억엔, 전후 최대의 도산</li> </ul>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당위원장 공선 (2.24.~26.) 결과발표- 飛鳥田위원장 선임</li> <li>· 三里塚- 芝山연합공청반대, 岡田주최 「개발지향 총력기집회」- 과격파, 成田공항 관제실 기계파괴</li> <li>· 사회민주연합(대표 田英夫, 서기장 樽崎彌之助)결성</li> <li>· 사회당 제42회대회- 80년대를 전망하는 신이념과 100만인 당건설을 목표로 하는 운동방침결정</li> <li>· 이탈리아 CGIL, 세계노련에서 탈퇴</li> </ul>	<p>장 내빈으로 최초 참석, 天池회장, 前川서기장 4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佐賀保중공업, 노조에 합리화안 (희망퇴직 1,000명, 임금동결, 메이스업 재로동)제시</li> </ul>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勸業 干羅지역본부 成田·佐倉지부, 나리과공항제트 연료화물수송 저지로 반일파업</li> <li>· 사철총연 제3회 중앙위원회- 입후대적 민간노조회의 참가문제는 전국급속의 참가를 조건으로 참가하기로 결정.</li> </ul>
--	--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월	노동운동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사당 제23회대회- 책임정당의 결집이라는 운동방침 결정, 공명당 竹入위원장 내빈으로 참석</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투공투회의 지역동맹파업- 고용화대동을 요구하며 20日(토)에서 29~1시간 파업</li> <li>· 춘투 (엔고 불황하의 춘투)- 노조측은 전년 (15%)보다 하회하는 대략 12%의 요구기준을 설정, 급속노협은 4.13.의 철강-조선등의 불황그림을 파악, 전기를 중간, 호형입공인 자동차를 상환으로 하는 3단계 (7,000엔~11,500엔)의 임금인상 회담에서 수습됨. 사철총연은 23. 이후 파업을 피종이하여 제2차회담 9,900엔에서 타결. 공노협도 25.부터 동맹파업에 돌입하였는데 26.공노위조정위원장 견해에서 사실상 투쟁이 수습됨. 참가인원 660만명, 임금인상 8.961엔, 5.75% (가중평균임, 단순평균은 9.218엔, 5.89%, 1987년까지의 임금인상액, 올은 단순평균) 이러한 인상률은 춘투사상 2번째로 낮은 것이었는데, 춘투후 노조를 사이에서는 춘투재평가론이 높아짐.</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外 회상, 국제인권규약에 서명 (3公社 5規業 직원의 파업연에 대하여는 유보)</li> <li>· 成田 신국제공항 개항(착공 이래 12년만 임)</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 한국노총, 중화민국총공회, 홍콩구룡공단 제 1회 정기회담(이후 매년 개최)</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업체등 기본문제회의, 정부에 3공사 5원업 직원의 노동기본헌장에 관한 의견서(현시점에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당치 않음) 제출</li> <li>· OFEC총회- 연내 가격동결 합의</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칭·공노협, 공공기업체등 기본문제회의보고서에 대한 반대성명</li> <li>· 동맹·全官公, 공공기업체등 기본문제회의보고서에 대하여 조건부 파업헌부여라는 태도표명</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회 선진국 정상회담- 각국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내건 「세계경제발전을 위한 종합</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칭 제57회 정기대회- 운동방침에 「반독점」이라는 문구부활, 都지사선거후보자(太田憲昭)하노련위원장</li> </ul>

	전략, 이라는 공동선언 발표 (일본은 7x시장을 공약)		결정, 佐藤元文의장, 富塚三夫사무국장 재선 · 노동운동통합간담회준비회(추진위대표 藤井元 총평 사무국장), 「노동운동통합간담회」설치를 제창(투쟁하는 노동전선의 재구축)
8	· 日中 평화우호조약 조인		
9	· 중동전화회의- 중동화정에 대한 합의서 발표 · 통산성, 北海道電力을 제외한 전력 8사, 가스대기업 3사가 제출한 연고차익환원에 의한 요금할인신청을 인가함(연고차익 환원)	9	· 중립노련 제5회 정기대회 - 신산별과의 「느슨한 融合」결성, 노동4단체공투의 부활결정
10	· 특정불활지역 이적자업시조치법, 특정불활지역 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 성립(~'83) · 중국 상소경부수상 방일 · 카터 미국대통령, 임금상승률은 연간5.75% 이하로 억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대책 발표 · 공경회환시장- 1달러 175엔 50전 (31일)로 전후 최고치 기록	10	· 신산별 제30회 정기대회- 중립노련과의 「느슨한 연합」결성, 노동4단체의 공투확대등 결정 · 중립노련·신산별에 의한 전국노동조합 총연합(약칭-총연합) 결성준비위원회 발족- 호칭을 「느슨한 연합」에서 「총연합」으로 하는 것 등 1979년 3월 결성 총회 개최 결정 · 사회당·공산당·총평·중립노련 등 14단체 주최 「국제반전대회」(1일 공투방식) · 총평, AFL-CIO와 회담
11	· 미국달러 방위책(공정이자율 8.5%에서 9.5%로 인상하는 등)발표, 이후 연貸 계속하락 (2월, 186년) · 공공기업채무 노동문제간담회 제1회회합(노조측 18명, 사용자측 11명, 학식경험자 7명, 제 37명), 좌장에 中山伊知郎 일본노동협회회장 선출 · 자민당총재선거 예비선거(大平正芳 압승,	11	· 79입부대책 민간노조회의 (20단산 참가) 발족- 藤嶋總謙·全日總에 대하여 분호계방 등 확인 · 총평대표단, DGB와 회담을 위해 유럽으로 건너감 · 총평, 유럽사무소 개설

연월	노동정책 및 경제	일	노동운동
12	· 福田수상 본선거출마 사퇴 · ILD이사회, 日教組의 재소 (파업에 대한 형사판결)에 대하여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를 채택 · 미중 정상회담 (카터, 화국통) - 양국은 1979.1.1.부로 외교관제를 수립한다는 등의 발표 · OFEC, 1979년의 원유가격을 4단계로 나눠 최종적으로 14.5%(연평균 10%) 인상결정 (제2차 오일쇼크) · 福田내각 총사퇴 · 大平내각 성립	12	· 동경지법, 국립파업은해제신청구사건 판결(원고지 청구기각) · 全總, 생산성운동(마부생)반대투쟁 - 11.25. 당국에 「노사관계개선에 관한 요구」제출, 12.15. 이후 연하우권치리거부, 20. 公勞總에 53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최종적으로는 54건), 29.공노위 「조항은 1.20.까지 투쟁을 일시 중단할것」을 골자로 하는 「심사위원 제도」 제안. 당국은 같은날, 全總는 1.4.에 수락 · 全職總, ICFTU가맹
1979. 1	· 동경도지사선거 후보자로 공명·민사 양당 鈴木俊一 공명기업금융금융고충재추대, 사회·공산당은 太田巖 추대결정	1	· 동명 제23회 집행위원회- 도지사 선거후보로 鈴木俊一추진을 결정 · 동명 제15회 전국대회 - 「1979년도 임금·정책투쟁(고용창출기구설치 요구가 중심)에 관하여」, 「총선거·동일지방선거 필승의 결의」등 결정 · 총평, OECD·TUAC가맹
2	· 중국과 베트남 국경분쟁	2	· 총평 제58회 임시대회- 춘투방결, 도지사선거 후보로 太田巖 추대결정 · 전국가공무원 노동조합공무원학회(全國公) 결성 (대회참포 158,000명, 국공노련, 국공노협, 會勤勞, 國會職連, 오키나와국공노의 공투조직)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회 통일지방선거- 동경도지사 선거에서 鈴木俊一 (자민·공명·민사 3당추천) 大隈府지사선거에서 巖田 (자민·사회·공명·민사·신자유클럽·社民連 6당추천)이 처음으로 당선</li> <li>· 동경지검, 항공기 의혹으로 海部상공회의소 巖井전부사장 체포, 최한범 위반혐의로 기소.</li> <li>· 공정이자율 0.75% 인상- 연율 4.25%로(1973년 12월 이후 5년반 만의 인상)</li> </ul>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일노련·신산별, 중언합결성(대회참표 140만명)</li> <li>· 國鐵千葉動力車노동조합(勤勞千葉) 결성 (1,100명)</li> </ul>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투 (갑당경연, 경기회복하의 춘투)- 임금투쟁은 패스킵, 유용관계가 선행한 후 4.11.에 금속노동조합의 철강, 전기, 자동차가 회담을 받아들여 사실상 해결 (불황하의 조선은 공동투쟁에서 이탈, 4월하순~5월중순에 해결), 중순 이후 주요 민간단상이 해결, 공기업체들은 國鐵교섭이 난항을 보임에 따라 공노위가 사립에 합선 25, 오전 9시에 「조정위원회 건재」를 제시하여 사실상 해결(鐵鋼은 全鐵鋼의 춘투제정가문에 따라 재벌조정), 사철도 동일오전 4시해결. 규모 659만명, 임금인상 9,615엔, 5.83% (가중평균, 단순평균은 9,359엔, 6.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關西 산업노사회의-「고용안정실현을 위한 방책」에 관하여 의견일치</li> <li>· 佐世保중공업 합리화행의 2.2일 회사제안 (임금 15% 인하, 메이스업·정기승급·연간상여금지급의 3년간 정지, 주휴 2일제의 폐지)을 노조가 받아들여 해결됨.</li> </ul>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한 제32회 정기총회 - 櫻田武희장의 사임승인, 大隈文平 새회장으로 선출</li> <li>· 關東 노사간담회 - 「고용안정실현을 위한 방책」에 관하여 의견일치</li> </ul>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총선거 - 대처 보수당내각성립(선진국 최초의 여성수상)</li> <li>· 국제무역개발회의 제5회총회- 다국적기업의 활동규제 등 결의</li> <li>· 대부수상 방미- 경제미찰문제 토의</li> <li>· 민사당 제24회대회- 보수·중도연합정권 구상이 나옴</li> </ul>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소 정상회담- SALT II 조약 조인</li> </ul>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전선축전노동조합간담회 (統一勞組懇), 민간선</li> </ul>

연월	노 동 정 책 및 정 세	월	노 동 운 동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국제인권규약비준서 기탁</li> <li>· 제5회 선진국 정상회담 (동경) - 1979~80년의 식음소비·수입목표 등에 합치</li> <li>· 제54회 OFEC총회- 기준원유가격 1배일당 14.546달러에서 18달러로 인상(상한 23.5달러) 결정</li> <li>· 신자유클럽 西園閣사장, 노신문제로 대립 발달</li> <li>· 미국, 공정이자율 10%로 인상</li> <li>· 國鐵당국, 운수상에게 「국철재건 기본구상」 (35만명체제를 실현하고 수지균형의 달성을 목표로 함)제출</li> <li>· 공정이자율 1% 인상- 연율 5.25%</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의 노동전선 재건동일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노동전선의 잠원 통일을 위하여」(5월목)제안</li> <li>· 총회 제59회 정기대회 「일련 총정」의 구축을 새로운 운동방침 결정</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회, 경제심의회 합선에 의한 「신경제사회 7개년 계획」 결정. (성장률 5.7%, 일본형 복지사회 실현)</li> <li>· 인사원, 정부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급여와 더불어 6%에 정년제·주휴 2일제 (4주 5휴제)를 권고</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공정이자율 10.5%로 인상</li> <li>· 일본철도건설공단에서 「전체조직에 부정정리(허위출장, 부정수당)」, 표면화, 중앙관청에서도 「허위출장, 부정수당」 문제화</li> <li>· 중의원해산 (3년 10개월 만에)</li> <li>· 공명·민사 양당 총선거 협력협정조인(14선거구에서 선거협력)</li> <li>· 미국 공정이자율 11%로 인상(인플레이제)</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총연 鐵鋼회장 「통일을 추진하는 모임」 제창</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달리안정책)</li> <li>제35회 중의민선거- 자민당 부건, 사회당 후퇴, 공명-민사 양당 신강, 공산당배중 (여야당 배중세)</li> <li>각의, 특수법인의 「부정수당」 문제에 대해 양해하기로 함 (입원-관리직은 국가 공무원과 같은 종류, 입원직원은 입원증자의 균형을 배려하여 국민의 양해를 구하기로 함)</li> <li>咸田공항에서 국제전신전화회사(KDD)사원의 입수사건 발각 (KDD입수사건)</li> <li>大平내각 총사직(수반지명을 미쁨으로 인해 국회공천)</li> <li>中華全國總工會(재건), 총령 초대로 문화혁명후 최초 발립</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문제연구회(勞問題研), 노동전선통일문제도 연구 과제로 하기로 확인.</li> <li>全總 생산성운동 (야무生) 반대투쟁해결- 2월교섭제거, 10.28, 「특별승급제도 가운데 특별사유(장관포장) 및 연수 수료에 의한 특별승급을 먼저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1971.4.1. 이전의 실질손실을 회복시키기로 함」 등의 내용에 노사합의</li> <li>철강노련 정년연장교섭 타결- 1981년부터 60세 정년제를 단계적으로 실시 (1981년에 57세, 82년 58세, 83년 59세, 85년에 60세 정년)</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9회특별국회- 수반지명에서 자민당 福田·大平의 건설부표결과 大平수상 재선</li> <li>제2차 大平내각 성립</li> <li>사회당 방미단(단장 飛鳥田원장)- 사회당 당수의 최초 발미</li> <li>사회·공명 양당 시가지회담 「진전협의위원회」 설치에 합의 (駐公중추노선)</li> <li>식유회에 8사가 식유가격인상 (1979년에 만 6번째)- 제2차 식유회기</li> <li>공정자율을 1x인상- 인플 6.25x로</li> <li>국제자유노련 제12회 세계대회(마드리드)</li> <li>富塚 총경사부국장, ICFTU 제12회 대회에</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연합, 총령-동맹과 노동전선통일문제도 제1회 대화- 총연합의 통일방정에 대하여 동맹은 소극적, 총령은 찬성의 뜻 표명.</li> <li>公的기업 행정재정개선노조간담회(公企業務組懇- 全交通-公勞協-公務員共闘-사실총연-國勞-勤勞-都市交 등으로 구성)발족</li> <li>佐世保중공업정의- 勞愛會(노조측), 10.28, 언저대회에서 「합리화 3항목의 복권투쟁을 중심으로 한 투쟁체제확립」 등 근대화투쟁방질 결정, 11.5.언저언시 생활구제금 요구, 회사 「합리화 3항목 협정」 위반이라하면서 거부, 노조측 12.20. 이후 92시간, 26. 이후 96시간 파업실시(조선중기노련, 동맹, 금속</li> </ul>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월	노동운동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석</li> <li>自來車總連, ICFTU가맹</li> <li>공명, 민사당수회담, 「중도정권구성협의회」 설치에 합의 (反자연, 공산당배제를 분명히 함)</li> <li>행정관리위원회- 행정관리청 장관에게 행정개혁의견서 제출</li> <li>각의 「일본국유철도재건에 관하여」 (1985년도까지의 거금적 할리 수지균형을 맞추고 직원 35만명체제를 실현함 등) 확인</li> <li>일소 양국공산당, 모스크바에서 공식회담- 8년만에 양당관계 정상화</li> <li>아프가니스탄에서 루데타- 이민혁명정의회의장 치형, 루입 카르마르, 소련군 개입</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협, 정책추진회의, 총령지원체제를 위함)</li> <li>私鐵總連 정년연장교섭타결- 1985년도까지 60세 정년제 실현, 정년연장실시에 관한 제조건 위급에 대하여 각자 협의</li> <li>총연합, 총령-동맹과 노동전선통일문제도 제3회 대화- 동맹은 대화의 일시중단을, 총령은 회담계속을 표명</li> <li>大平수상, 노동4단체와 회담- 노동측 노동기준법제정에 의한 주40시간- 주휴 2일제, 60세 정년연장 확립, 고령자 고용불허 달성등 요청</li> <li>政勞協 언저상이금투쟁- 진년실적을 요구하고 6월에 걸친 파업을 행하면서 해를 넘김.</li> <li>금속노협- 화학에너지 노협, 1980년 임무에서 처음으로 「금속화학에너지 공무회의」 설치</li> </ul>
198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카터대통령, 소련군 아프가니스탄 개입문제로 對蘇 국물수출 대목사감동 보복조치 발표</li> <li>사회·공명당 연합정권구성에 정식합쳐</li> <li>UN인금특별총회- 소련군 아프가니스탄 즉시 철수결의</li> <li>中立勞連, OECD·TUAC가맹</li> <li>제14회 일소노조교류위, 아프가니스탄문제 대입</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령 파업권 대책위- 총령파업권 입법특구상 대강점약 (3공사 5현업 직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의 쟁의권확복 등)</li> <li>통일노조간- 내셔널센터의 발함에 대한 건담회 (노동계, 학자, 문화인등 有志로 구성) 설치</li> <li>동맹 집행정치회- 3공사 5현업 직원의 파업권에 관하여 조건부 파업권 회복방질 확인</li> <li>동맹 제16회 전국대회- 「시련의 80대대의 도전」 이 단 제하의 「1980.81년 운동방질」 결정, 佐世保勞愛會지원 결의, 신집행부회장 宇佐美忠信, 시가지 田</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국회에 피직수당개정법안 제출 (중의원해산으로 심의완료 못한 채 폐안)</li> <li>사회당 제44회 대회·사회·공명당의 연합정권구상을 포함한 운동방침 결정</li> <li>공산당 제15회대회·宮本顯治위원장·不破哲三서기장 4篇</li> <li>공정이자율 1% 인상- 연율 7.25%로</li> <li>미국, ILO복귀</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申良一 선출</li> <li>공노협·공무원공투 「피직수당공투」 결성</li> <li>佐賀保중공업등의- 전년말의 파업에 계속하여 1.7. 3일에 96시간 파업, 18. 노조합리화 3원칙 개정요구 제출, 회사거부로 23. 4번째 44시간 파업, 2.1. 이후 5번째로 264시간 파업, 2.5. 長崎지노위 해결요망제시, 단재교섭결과 15.에 합의 가조인 (11.27. 부당노동행위사건으로 화해성립)</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국회에 국가공무원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정년제 법안) 제출. (중의원해산으로 심의완료 못한 채 폐기)</li> <li>주유 2일제 관제각료회의- 인사권 권고대로 주휴 2일제(4주 1회 교대제) 도입방침 결정</li> <li>공정이자율 1.75% 인상- 연 9%로, 이후 2번 인하여 11월에는 7.25%로</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전선동맹에 관한 6인위원회 대화제시(鹽路자동차총연회장, 宇佐美健선동맹회장, 塙山전기노련위원장, 橋本전력노련회장, 中村철강노련위원장, 田中전국화학동맹회장)</li> <li>동경지방법원, 1974년 춘투시의 일교조 4.11.동맹파업사건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에 관하여 日教組전력위원장등에게 벌금 10만엔 유폐판결</li> <li>國勞·勤勞, 국철재건법, 은입인상 반대로 파업</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카티대통령, 외교관계 단절, 수출·수입금지물 4개항목의 화이트란 제재조치발표</li> <li>국철 은입인상(5.1%)</li> <li>미일정상(카티·대부)회담- 방위력 증강에 대하여 「진정한 자주」 검토를 약속</li> <li>민사당 제25회대회- 중도연합정권을 목표로 한 운동방침 결정</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노협·공무원공투, 「정년제 지지공투」 결성</li> <li>춘투 (경기화대기조와의 춘투)- 노동4단체의 임금인상 요구기준 8%로 함. 금속노협의 4.9. 일제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하여 사철총연을 비롯한 민간주요단산은 4월 중순을 중심으로 4월말까지 대개 해결. 공기업체등이 임금분쟁은 공노협의 조정단체에서 「民間調停」 방식을 둘러싸고 공노협계 노동자위원회의 사일문제가 발생, 조정직업이 중단되어 해결이 지연됨. 규모는 650만명, 임금인상 11,679만, 6.74% (가중평균, 단순평균은 11,953만, 6.74%)</li> </ul>

연월	노 동 정 책 및 정 세	월	노 동 운 동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의원, 大平내각 불신임안이 야당합심, 자민당 비주류파 불참으로 가결성립.</li> <li>화국봉 중국수상 방일</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철당국, 10월에 일차운행료 개정제안, 國勞·勤勞 반대성명 (9.19일, 일차운행료 개정에 따르는 구체적인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지방협회, 피직위원장인명인장·노동시간단축문제는 중앙에서 계속하여 협의하기로 함)</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大平正秀수상 總棟</li> <li>제36회 공의원선거- 자민당 압승, 사회당 현상유지, 공명·민사·공산당 3당은 피츠(보수→복귀, 혁신→피츠)</li> <li>제12회 참의원선거 (중의원선거와 같은 날 실시, 자민당 승리)</li> <li>주요선진국 정상회담- 인플레이션제에 합의</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국회에 國鐵·郵政의 중재제정(의결안건) 및 국철재건법·우편요금인상법안 제출</li> <li>鈴木善幸내각 성립</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정 제61회 정기대회- 통일노조간 해체요구결의, 金枝元의장·富塚三夫사무국장 2선</li> <li>통일노조간, 총정의 「대산요구」에 반론제시, 합의성명 발표</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폴란드, 그다니스크에서 조선노동자등 5만명이 파업발발, 전국에 확산 (9.1. 자주관리노조 「連帶」 결성)</li> <li>原水禁 1980년 세계대회국제회의(동경, 히로시마)</li> <li>原水協주최, 일본原水協행사(히로시마, 나가사키)</li> <li>原水禁주최 피폭35주년 현수폭금지대회(히로시마, 나가사키)</li> <li>核禁會議주최, 핵금회의 九州물류집회,</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MF·JC 대표단, 최초로 중국방문</li> <li>노동4단체 「정체위원회」 설치</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核禁會議 히로시마 전국집회</li> <li>· 이란·이라크 전쟁개시</li> <li>· 총리대표단 중국방문</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추진회」 발족- 野山, 宇佐美, 藤路, 橋本, 中村, 中川(全日通위원장)으로 총연합, 동맹, 순종협, 화학에너지노협, 금속노협, 총령을 포괄하는 형태로 구성</li> <li>· 노동4단체, 정부에 불가역제·불가조정감세의 실시·고용대책등 요구</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국회에 퇴직수당 개정법안·국가공무원법 일부 정법안(정년제 법안) 제출(계속심사)</li> <li>· 국회, 國議·郵政 중재제정 승인안건의결</li> <li>· 중립노련 중국방문</li> <li>· 총맹대표단 최초로 중국방문</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1.국제반전대이- 反안보전국실행위(사회당계), 안보파기·제요구만철 중앙실행위(공산당계) 양단체 공동주최로 사회·공산당 1일 공투</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레이건 공화당후보 당선</li> <li>· 중국에서 「4人幫」 재판개시</li> <li>· 제59회 OPEC총회- 원유가 10% 인상결정</li> <li>· 우편요금인상법·국철제기법 성립</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단산 브리지(bridge)공투 치음 발족(전기노련·자동차총연·전력노련·철강노련·私鐵總連·全日通·전국금속)</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추진회 제4회 회의 - 통일체의 성격을 느슨한 협의체 또는 공투조직의 성격으로 하는 것, 1981년 내에 통일준비의 발족 등 확인</li> <li>· 대입선, 全總 플레카드사건 판결-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징계처분은 합헌</li> <li>· 노동4단체, 1981년 임금·정책요구를 공동발표(임금인상요구(10%)에 대하여 공식으로 조정하고 공동발표한 것은 최초)</li> <li>· 통일노조간 연차총회- 「80년대」의 장기활동방침,</li> </ul>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월	노동운동
			1981년 춘투임금요구 3만엔이상 등 결정
198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경 최한시장, 1달러=200엔 돌파</li> <li>· 鈴木수상 ASEAN순방</li> <li>· 人事院, 국가공무원 주휴 2일제 운용규칙 제시</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령, 동맹, 중립노련, 신산별 등 노동4단체 수뇌공동기자회견(최초)- 81년 춘투에서 임금인상 10%의 통일요구 전면행위, 대중세금증세에 의하지 않은 재정개선, 불가대책 등을 요구하고 파세달성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함.</li> <li>· 동맹 제17회 연차 전국대회- 임금·정책투쟁, 경제사회연구소 설립준비, 선거대책 등치 방침결정</li> <li>· 노동전선통일추진회, 사회민주주의 존중, 기본적 인권의 존중, 향구적 평화추구, 사회정의의 실현,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등 5개항목을 운동의 기본이념으로 할 것에 합의</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産勞懸, 불가대책에 대하여 정부측에 재언</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령 62회 임시대회- 장기전망에 근거한 국민운동전개, 81년 춘투방침, 노동전선통일체의 대응 등 3개의 안건 통과</li> <li>· 총령, 동맹, 중립노련, 신산별 등 노동4단체, 이야대표 및 宮澤官房장관에게 면세결 인상, 불가대책 등 요구</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W, AFL·CIO복귀 결정</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 정책추진노조회의에 금속노협, 화학에너지노협이 가세하여 행정개혁국민연합추진회의 결성</li> </ul>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투- 본지 춘투인 全總집중회담이전에 교역회담을 끌어내기 위한 제1그룹 투쟁(화학, 중견금속, 상업서비스, 레스토랑 등)을 예치하는 전술 채택, 대체적으로 3월 중순까지 요구제출을 하고 4월제 2주를 코비체으로 하여 금속노협(IMF, JC)이 집중결전방식으로 춘투상장을 형성하였고 뒤이어 민간주요조합, 私鐵,</li> </ul>

			공기업제 등이 타격을 봄. 임금인상은 14,037명, 인상률은 7.6%(가중평균임. 단순평균은 14,158명, 7.73%)
5	- 제1회 대평양 노조회의 - 프랑스 대통령선거, 미태양 사회당후보 당선 - 폴란드 자유노조「連帶」대표단 방일		
6	- 중국, ILO활동 복귀	6	- 통일추진회, 「기본구상」결정 및 통일준비회에 참가 요청 - 총칭 제63회 대회, 「ICFTU와의 연대강화」주장
7	- 제2입시행정조사회, 제1차 당선 제출	7	
8	- 인사현, 공무원급여 5.23% 인상을 국회와 내각에 권고		
9		9	- PTTI(국제제철노련) 제24회 세계대회 동경에서 개최 - 기술혁신에의 대응을 결의 - 제3차 산업혁명(공장-사무자동화, ME化)에 대한 노동계의 문제인식 본격화됨. - 총칭, 추계연말투쟁방침 협의 - 노동4단체, 내년 춘투에 대하여 협의, 시간단축-갑새요구 등에서 일치함.
10	- 남북정상회담 (멕시코) - 國總총재, 경영개선계획 화물중심으로 파골 의사가 있음을 표명	10	
11	- AFL·CIO결성 100주년대회 - FIET·JLC결성 - 歸水계조내각 발족	11	- 총칭 제64회 임시대회, 노동전선통일문제로 분열 - 全民團庫黨준비회 참가모용 - '82 국민춘투공투회의(총칭, 중립노련, 순종립노조로 구성)발족- '82년 춘투목표로 ①임금인상에 의한 內需 확대, 外需지존형에서 탈피하여 일본경제 안정도모 ②물류산업 및 중소기업노조 투쟁지원을 통한 실업률과 적화시정 ③조연 소득세감세 목표 및 불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월	노동운동
12	- 폴란드 비상사태선언	12	공정개혁시정 ④정부, 경영자측의 임금인상억제책과 분단체를 타파하기 위하여 노동4단체의 통일요구기준 작성 ⑤건설모르는 금속노협의 임제회담 이전에 회담을 끌어내는 제그들처 투쟁중시등을 제시함. - 노동4단체 시가장회의, '82임금인상 요구에서 통일기준설정원칙 확인 - 새로운 민간노조협회 결성을 위한 통일준비회 발족 (39단선, 300만명 결집)
1982.			
2	- 세계노련 제10회 세계대회 (파리나)	3~5	- 춘투 (경기회복세가 원만하고 근로자세대의 실질가치분소속이 2년연속 감소하는 상황하에서의 춘투)- 全總總連이 금속노협등 주요연간단선과 보조를 맞추어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사철, 공노협도 파업없이 분쟁을 수습하여 "파업없는" 춘투가 정착되기 시작함. 임금인상은 13,613명, 7.01% (가중평균)
4	- IMF세계자문자회의 (봉경)		
5	- 노동4단체, 「國觀에이데이」 실시 - 정부, 공기업제정 급여문제 각료회의에서 중재제정을 국회에 부의하기로 결정		
6	- UN군축특별총회(유럽에서 반핵운동 모양) - AFL·CIO, ICFTU에 복귀		
8	- 인사현, 일반직국가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부양수당, 통근수당을 포함하여 평균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58%의 급여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li> <li>정부, 인사원건고에 대하여 걸론 유보</li> <li>임시행정조사회(臨調), '급여제정에 대해 강력한 억제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 이라는 회장소견 발표</li> <li>제2회 태평양노동조합의</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공투, 중재제정·인사원건고의 완전실시를 주장하면서 29분~1시간의 동맹파업실시</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鈴木수상 퇴진포명</li> <li>'반핵,군축, 평화, 교육 국제실포지음' 개최, WCOTF주최(히로시마)</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同盟, 全官公은 국제자유노련과 연명으로 10.6.에, 공무원공투의 國公勞總, 全農林, 自治勞, 日教組는 12.에 각각 중재제정, 인사원건고에 대하여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中曾根 신내각 발족</li> <li>연말임시국회에서 중재제정 완전실시승인</li> <li>제116회 農勞總에서 노동4단체는 연명으로 '관공노동자 파업권회복에 관하여 대화할 것' 을 요구- 각지에서 인사원건고 실시 유보결심후 일경연 수거부에서는 공투·공공부문에 대하여 파업권을 부여하여 강제중재제도, 인사원건고제도를 대신 할 것을 표명할 바 있음. 중경도 중재제정, 인사원건고의 완전실시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파업권, 단체교섭권의 회복은 당연하다고 주장</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일본민간노동조합의회(全民勞協) 발족 (41單産, 민간조직노동자의 약 47%에 해당하는 423만5천명 참가)</li> <li>-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왔던 민간선행에 의한 노동전선통일운동의 1차도달점으로 됨.</li> </ul>

연월	노동정책 및 경제	일	노동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전선속진노동조합간담회(統一勞組懇) 및 총평서 太田藏, 市川誠兩元의장, 岩井幸元사무국장 3고문은 전민노협의 결성을 노동전선의 우익재편이라 비난하고, '우익재편반대, 전민노협 출범, ' 83 춘투승리를 위한 민간노조 12.14. 총결기 대회' 를 개최함.</li> </ul>
198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4단체와 전민노협, 공산당을 제외한 5개 야당은 공동으로 고용안정, 1조엔 감세, 복지확충, 인사원건고 즉시실시등을 주축으로 하는 정책제도요구 실현을 위한 집회개최</li> <li>日経連, 제65회 전국노동관리자대회 '1983년도 임금교섭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개최</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춘투제개혁·동맹대회, 총평임시대회에 의한 춘투제개혁, 전민노협은 대표자대회에서 ' 83임금투쟁위원회 및 전술위원회 설치, 통일노조간은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전민노협 및 노동4단체에 의한 '管理春闘' 타파를 목적으로 하는 독자적 행동방침 결정</li> <li>노동4단체·전민노협, 소득세감세, 임금인상 촉구를 위한 '2.27. 대집회' 개최</li> <li>국민춘투공투회의, 제1회 전술위, 제3회 총회에서 춘투기본공약 결정</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LO 이사회, 일본정부에 인사원건고 조기 실시 등의 권고제출</li> <li>臨調, 행정개혁 최종담선- 새금증기 없이 재정재건할 것을 명시</li> </ul>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투(전면노협 발족후 최초의 준투)- 금속노협 산하 4단선 대기업에서 입제회담 및 罷議이 타격을 본 후 민간 각 산업에 있어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 公勞協은 민간준거원칙, 기업체간 임금인상격차 풀려, 중재재정 완전실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확인되면 파업을 행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방침결정(스케줄조정방식으로부터 사후대처방식으로 전환), 임금인상은 8,964원, 4.68% (가중평균)으로 올리는 준투사상 가장 낮은 수준임.</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産노사, 로보트협정체결</li> <li>- 全民勞協대토론회, 총명 8擧産 참가 정식확인</li> <li>- 日經總수저, 전면노협 간부와 당면한 노동문제에 대하여 의견교환</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회 통일지방선거- 北海道, 福岡 지사 선거에서는 혁신계후보 당선, 기대는 현상유지, 각급 의회선거에서는 자민·공명당 신장, 사회·연사·공산당은 후퇴</li> <li>- 총평, 알레이지아 관공노조, 「일본적 노사관계재미나」 개최 (알레이지아)</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의원선거- 자민당 신장, 사회당·민주연합 후퇴, 공산·민사당 약간 신장, 공명당은 불변</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투공투, 公勞協, 동맹, 全官公, 각각 중재재정시 즉시 완전실시 요구</li> <li>- 노동4단체 정책위, 경제운영·예산요구 결정</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재정 국회에 부의</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명 제36회 정기대회, 83년도 운동방침 결정, 신집행부 선출</li> <li>- 全民勞協, 「정책·제도 요구실현 중앙집회」 개최</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천, 일반적 국가공무원 평균 6.47%, 15,239명의 급여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편</li> </ul>		

연월	노동정책 및 정세	월	노동운동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을 행방, 原水禁 각 대회</li> <li>- 대한항공기 격추사건</li> <li>- 총평, 대한항공기 사건으로 對鮮교류정지 (11.7.까지)</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公務員共闘, 「인사천연고 완전실시」 요구 중앙행동</li> <li>- 노동4단체·전면노협, 감세요구로 5개야당과 회담</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際反戰대미 집회</li> <li>- IMF 새재전기전자회의(동경)</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공투, 인사천연고 실시요구로 최고 2시간 시위파업</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급여연계각료회의, 공무원급여 4,771원, 2.03% 인상방안 국회에 제출</li> <li>- FIET 세계대회(동경)</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4단체, 전면노협 공동으로 「'84입금투쟁연락회」 발족시킴.</li> <li>- 총평·동맹·공무원공투·全官公 등은 공무원급여에 대한 정부조치에 대해 「인사천연고제도를 부정하는 복거」라 규탄</li> <li>- 인사천 총제도 「인사천연고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 비판</li> <li>- 총평·공노협·공무원공투,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국제실포자음 개최</li> <li>- 國民春闘共闘會議, 「84준투 요구기준안 결정</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니카수상에 대한 유죄판결을 계기로 중의원해산, 총선거실시- 자민당 할때, 이 야당 백중상대 개편</li> <li>- 특정불참입증지역법 (~'88)</li> </ul>		
198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운수노련 (ITF) 아시아·태평양지역 내륙운수노동자회의(동경)</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O, AAFLI 「태평양노조회의」 공동개최 (하와이)</li> </ul>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투 - 노동4단체 및 전면노협에 의한 「국민의 생</li> </ul>

			활을 지키는 '84총권기 집회'를 계기로 본격단계에 진입. 임금교섭은 예년과 같이 예스업, 출판, 유통, 섬유, 금속, 화학의 일부가 선행하였고 뒤이어 금속노협 및 사철 등이 고비탈을 형성함(私鐵總連의 「鐵鋼의존으로부터 탈피」 및 私鐵선행에 의한 순수 재구축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후 민간대기업 임부는 예전에 없이 단시일내에 끝남. 임금인상은 9,354원, 4.46% (가중평균)
4	· IMF 자동차출연 세제자동차협회(동경)		
5	· 정부, 중재재정 국회에 제출		
7~8	· ICFTU·ABO 및 ICFTU·APRO(아시아·태평양 지역조직)으로 이름 바꿈		
8	· 독일 IG Metal, 시간단축요구로 파업		
7~8	· 중의원, 참의원 중재재정실시 승인		
8	· 인사원, 6.44% (15,541원)의 급여인상 권고		
10	· 동맹, 11년만에 勸諭		
10	· 공무원공투, 인사원권고의 환전실시를 요구하는 중앙동원행동 및 2시간 동맹파업 실시		
	· 정부, 각지에서 4.1.로 소급하여 평균 3.4% 이내의 급여조정 방침확정		
	· 제3회 태평양노조회의		
	· 제3회 아시아交際세미나 (중국 최초 참가)		
11	· 동맹과 中露 4야당 勸諭		
	· 국제공무원 노련(PSI)세계집행위원회 및		

연월	노동정책 및 경제	원	노동운동
	제 6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동경)		
1985.		1	· 노동4단체 및 전민노협, 「85년 감세, 시간단축, 임금인상요구실현 총권기 집회」 개최
2	· 「아시아·태평양 노조회의」 개최	2	· 전민노협·입법연과 간담, 임금교섭 및 경제운영에 관하여 의견교환
3	· 국제운수노련(ITF) 집행위원회(동경)	3	· 국민총투쟁투회의, 國民공투파업실정 중 순투일정 확정
	· 일본생산성본부, 생산성운동 30주년 기념 식전 개최, 생산성운동 30주년 선언발표	3~5	· 순투(경기회복과 기업수익의 순조로운 신장, 안정된 물가 등항하의 순투)-순투전단계에서 언급, 시간단축, 감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제도요구 투쟁 전개. 임금투쟁은 3월 하순에 들어 본격화됨. 입법연락회의 임금인상요구실현 총권기집회 개최를 계기로 예스업, 출판, 섬유, 금속, 서비스, 화학의 일부에서 회담이 제시되었고 금속노협이 고비탈을 맞음. 뒤이어 私鐵대기업이 24시간 파업을 배경으로 一體回答에서 타결. 이후 민간대기업에서는 전년에 이어 단기단내에 검증 해결됨. 임금인상은 10,871원, 5.03%로 전년보다 1,517원(0.57포인트 P) 상회
5	· 남태평양기회공동체 제정	5	· 노동4단체·전민노협, 시간단축요구 때문에 노동기준법개정요구 협의
6	· 미국 FIB, 공정이자율 7.5%로 인하	6	· 입장노련, 상업노련, 電力總連, ICFTU 가맹
	· 정부, 公勞協의 중재재정을 국회에 부의		· 노동4단체·전민노협, 감세, 시간단축, 중재실현 등에 관한 긴급집회
	· 노동자 파견법 제정	7	· 총권기 집회, 임금투쟁·시간단축·조직회복·노동전선통일 등 운동방향 결정
	· IMF 세계대회 (동경)	8	· 全民勞協 3역회의, 87년 가을 연합제이행, 노동4단
8	· 인사원, 5.74%, 14,312원의 공무원급여인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 권고</li> <li>· 全羅勞務代表, 동맹조합으로 통일</li> <li>· 정부, 행정개혁대상 각의에서 결정</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4단체·전민노협, '86입금투쟁연락회 설치</li> <li>· '86국민순투공투회의 발족</li> <li>· 노동4단체·전민노협, '86세계개혁·감세요구 결성</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급여관계각료회의 및 각의에서 권고대로 급여개정 결정, 국회에서 가결심립</li> <li>· 인사원권고대로 봉급표를 개정한 것은 1981년 이후 만 4년만임.</li> <li>· 미소 정상회담, 핵전쟁 회피합의, 군축교섭 가속화</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民勞協총회, 1987년 連合體로 이행확인</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정</li> </ul>		
198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페인, 포르투갈 EC가입으로 EC회원국 12개국으로 확대됨.</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4단체·전민노협, 사무국장·서기장회의 개최, 노동시간에 관한 노동기본법 개정요구요강(1일 8시간, 주 40시간) 결정</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원, 남녀고용기회균등법 4월 시행에 앞서 여자공무원 보호규칙개정 발표</li> <li>· 미국, 공정이자율 7.5%에서 7.0% 인하</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 노동지도자회의 (노동서미프) 개최 - 일본에 대하여 내수확대 및 시간단축 요구</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시행</li> <li>· 경제구조조정연구회보고서 제출 - 산업구조의 전환, 국제협조촉진 제언</li> <li>· 미국, 공정이자율 0.5% 인하하여 6.5%로 함</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정부, 경제구조조정연구회의 제언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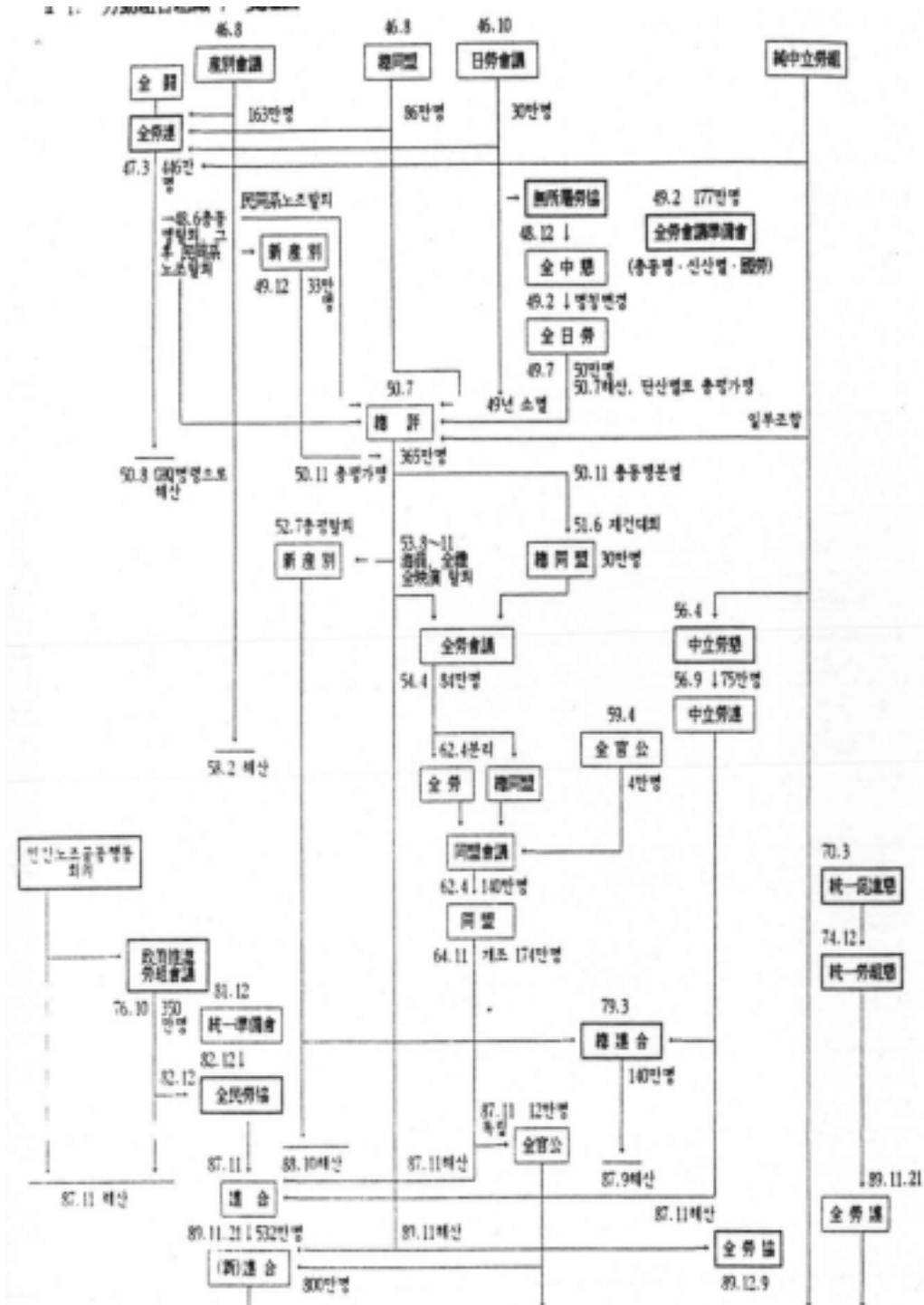
연월	노 동 정 책 및 정 세	월	노 동 운 동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화하기 위하여 「경제구조조정 추진요강」 결정</li> <li>· 동경시장에서 연화가 전후최고기록(1달러-158엔)</li> <li>· 미국, 공정이자율 6%로 0.5% 인하</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령 정기대회, 86년도 운동방침결정 및 노동전선통일문제에 대하여 토의</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공정이자율 5.5%로 인하</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혁신시대의 생산성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제2회 국제생산성 심포지움 (서독 뮌헨)</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4단체·전민노협, 4야당 (사회·민사·공명·한민총)과 세계개혁 문제로 협의</li> <li>· 노동4단체·전민노협, 「감세실현, 노인보건법 계약 반대」 중앙집회 개최</li> <li>· 노동4단체·전민노협, 87입금투쟁연락회 설치</li> <li>· 노동4단체·전민노협, 노동기본법의 근본적인 개정 에 대하여 노동대선에게 요청</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 4選6體制 시행</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7국민순투공투회의 발족</li> <li>· 産勞懇회합, 고용·임금에 대하여 의견교환, 円高가 순투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우려 표명</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심의회, 경제구조조정 특별위원회 중간 보고 발표</li> <li>· 고령자 고용안정법 제정</li> <li>· 노인보건제정법 심립</li> </ul>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新廣川 리포트(경제심의회의 구조조정 권의안)</li> <li>· 노동기준법 개정· 주 40시간 노동을 법정노동시간 단축목표로 설정하고 우선 46시간으로 단축, 변형노동시간제의 다양화 및 제한적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함.</li> <li>· 국영기업노동관계법 제정</li> <li>· 장애자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개정</li> <li>· 지역고용개발촉진법 제정</li> </ul>
(11.29)	· 전일본민간노동조합연합회(連合)결성 - 同盟과 申立労働은 해산, 연합에 흡수됨. 56團體, 535만명 결집
1988.	· 특정불량업종등 고용안정법 제정
198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 ' 89준부생활투쟁 중앙토론회 개최</li> <li>· 노동성, 환전주휴 2일제, 20일간의 연차유급휴가로 8조원 이상의 내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서산함.</li> <li>· 연합-업경연, 토지·주택·연금 등의 문제에 대한 간담회</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경, 임금인상 8% 인상(정기승급제외), 22,000명 이상 등 ' 89국민준부방질 결성</li> <li>· 리쿠르트 코스모스사 미공계주식 양도사건으로 민사당위원장 塚本 사죄포명</li> <li>· 일본생선성본부, 연합협천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국제실험포지움」 개최</li> <li>· 연합, ' 89준부생활투쟁방질 추진행방요령, 준제시간단축투쟁지침 등을 승인</li> <li>· 연합, 준제임금인상과 시간단축문제에 관하여 일경연과 협의.</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 4야당과 참의원선거구 통일후보 추대에 대하여 협의</li> <li>· 연합-총경·友愛會議, 통일준비작업위원회 설치등에 관하여 협의</li> <li>· 연합-총경, 임금인상·시간단축·연금·리쿠르트 의혹구명을 요구하는 총질기집회</li> <li>· 국민준부연락회, 준부승리 3.31.총질기집회 개최</li> </ul>

년	노 동 정 치 및 노 동 운 동
4	· 사회, 공명, 연사, 靑民連 등 4야당의 제창에 의해 연합정권협의회 최초회합 개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총경·友愛會議 합동수뇌회의, 官民統一推選會 설치 등 합력사상 확인, 기초위원회, 관민통일추진회를 계속 개최</li> <li>· 統一勞組總, 연금제도 개혁 반대, 소비세 폐지, 전면세정을 목표로 하는 준부 제8회 통일행동실시</li> <li>· 全勞協결성을 목표로 하는 제4회 전국대표자 회의, 9.9.준비회단축, 11.의 총행해산 전후에 정칙결성을 목표로 하는 방질결정</li> </ul>
6	· 다에시다네각 총사직, 우노(宇野宗祐)의상이 자민당 새총재 및 수상으로 선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경, 사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개방된 연합정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방질결정</li> <li>· 東京都의회 선거결과, 자민당 28석이 감소한 43석으로 진박</li> <li>· 노동성조사, 기능노동자 206만명 부족, 부족률은 1975년 이후 최고수준임.</li> <li>· 제15회 참의원선거, 자민당 과반수장악 실패하여 여야당 의석 역전, 連合후보 11명이 당선</li> <li>· 우노수상, 참의원선거 재책임을 지고 수상과 자민당총재 사임포명</li> <li>· 노동성조사, 주휴 2일제 채용기업은 52.7%</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쟁하는 내소날센터 결성준비회단축 총회, 26團體, 12지방조직 대표자 500명 참가, 11.21.에 투쟁하는 내소날센터 결성대회를 개최할 것 등의 방질결정</li> <li>· 가이후(海部)내각 발족</li> </ul>
9	· 全勞協결성을 목표로 하는 준비회결성- 12.9. 결성대회 개최, 全勞協의 운동기조, 조직 및 운영방침 등 제안
10	· 全官公, 관민통일후 全官공의 방향을 지명연합결성으로 들린다는 원칙을 확인
11	· 연합·총경·友愛會議, 새로운 시대를 여는 11.8. 총질기집회 합동으로 개최 - 소비세 폐지, 국회해산, 총

(11.21)	<p>선지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공명·민사·租民總· 4당 시기장, 연합정권립치 3개월만에 재계</li> <li>· 統一勞組總, '全勞總' 발족으로 統一勞組總상 결성</li> <li>·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결성으로 40여년 만에 일본노동운동 통일·總體이 해산하여 관공노조가 연합에 참가함으로써 일본 전체조직노동자 1,225만명의 65%인 78조직 800만명을 회원으로 확보, 연합회 출범을 우익재권이라 비판하는 공산당계가 27單總, 40地方組織을 규합하여 투쟁하는 내소날센터로서의 전국노동조합총연합(全勞總) 결성</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당 좌파계, 전국노동조합연합회의(全勞協)결성· '連絡·共闘조직' 으로서 26都道府縣, 136단체, 50만명으로 발족</li> <li>·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연락회발족 총회· 활동방침, 운영요강 등 결정</li> <li>· 토지이용 및 토지정책의 기본이념을 나타내는 토지기본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립</li> <li>· 국민연금·후생연금제정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li> </ul>

## II-1. 勞動組合組織의 變遷圖



(주) 1. [ ]는 별개의 또는 공통주체조직  
 2. 조합원수는 결산대회에서 발표한 수치  
 3. 해산 당시 조합원수는 總計 308만, 同盟 210만, 中立勞總 165만, 新産別 6만, 무소속 436만 명.

자료 : 元井久夫, 『日本勞動運動史』, 勞務行政研究所, 1983 ; 日本勞動協會, 『勞動運動白書』, 1989 ; 日本經濟新聞, 1989. 10. 22일자 등에서 재구성.

II-2. 年度別 勞動組合組織 一覽

年 別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第一勞動組合數	-	-	-	-	-	-	-	-	-	-	-	-
單位勞動組合數	12,896조합	29.5%	23,323조합	45.3%	33,935조합	52.0%	34,888조합	55.8%	29,144조합	48.2%	27,644조합	43.8%
推定組織率												
組 織 別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總 計	-	-	-	-	-	-	-	-	50.7萬名 (365만명)	-	2,921,228	51.4
同 盟	-	-	-	-	-	-	-	-	-	-	-	-
同盟會議	-	-	-	-	-	-	-	-	-	-	-	-
全勞會議	-	-	-	-	-	-	-	-	-	-	-	-
總 同 盟	46.8萬名 (88만명)	-	759,279	13.3	875,470	13.0	913,827	13.7	835,115	14.5	313,448	5.5
産別會議	46.8萬名 (182만명)	-	1,146,329	20.1	1,228,151	18.4	1,039,190	15.3	290,986	5.0	46,704	0.8
新産別	-	-	-	-	-	-	-	-	54,914	1.0	(69,467)	(1.2)
日勞會議	46.10萬名 (39만명)	-	특정	-	48.12萬名 (無所屬勞協)	0.7	49.7萬名 (全日勞)(59만명)	-	58,746名 (58,968)	1.0	-	-
中立勞連	-	-	-	-	-	-	-	-	-	-	-	-
全勞連	-	-	47.3萬名 (448만명)	-	(4,347,310)	(65.1)	(3,818,985)	(57.2)	58,846名 (753,883)	(13.2)	-	-
기 타	-	-	4,382,824	78.6	4,385,531	65.7	4,721,466	70.9	4,712,549	81.6	2,588,001	45.5
勞動組合員數	3,679,971	100	5,692,179	100	6,677,427	100	6,455,483	100	5,773,968	100	5,686,774	100

年 別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第一勞動組合數	-	-	18,228조합	-	18,127조합	-	18,013조합	-	18,335조합	-	19,297조합	-
單位勞動組合數	27,351조합	40.2%	30,129조합	36.2%	31,456조합	35.5%	32,812조합	35.6%	34,873조합	33.5%	36,684조합	33.6%
推定組織率												
組 織 別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總 計	3,181,829	56.2	3,272,672	55.5	3,003,127	49.4	3,093,513	49.2	3,137,551	48.5	3,459,228	50.5
同 盟	-	-	-	-	-	-	-	-	-	-	-	-
同盟會議	-	-	-	-	-	-	-	-	-	-	-	-
全勞會議	-	-	-	-	54.4萬名 (506,001)	9.8	626,251	9.9	661,965	10.2	782,459	11.6
總 同 盟	218,829	3.8	243,776	4.1	(221,531)	(3.6)	(237,432)	(3.8)	(242,317)	(3.7)	(256,297)	(3.8)
産別會議	27,491	0.5	13,645	0.2	13,142	0.2	11,549	0.2	12,078	0.2	12,540	0.2
新産別	39,746	0.7	49,422	0.7	49,951	0.7	34,361	0.5	36,135	0.6	37,933	0.6
中立勞連	-	-	-	-	-	-	-	-	56.4萬名 (75만명)	-	-	-
기 타	2,558,989	44.7	2,398,717	40.8	2,445,713	40.2	2,542,231	40.4	2,647,893	41.0	2,583,286	38.2
勞動組合員數	5,719,560	100	5,927,079	100	6,075,746	100	6,285,878	100	6,463,118	100	6,762,601	100

年 別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第一労働組合数	28,132조합		28,725조합		21,957조합		24,327조합		24,899조합		25,844조합	
單位労働組合数	37,823조합		39,303조합		41,561조합		45,696조합		47,812조합		49,796조합	
推定組織率	32.7%		32.1%		32.2%		34.5%		34.7%		34.7%	
組 織 別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總 計	3,548,921	58.8	3,666,267	58.8	3,745,896	48.9	3,968,123	47.5	4,122,099	45.9	4,191,683	44.8
同 盟	-	-	-	-	-	-	-	-	-	-	-	-
同盟會議	-	-	-	-	-	-	-	-	62.4결성 1,282,696	13.4	1,348,268	14.4
全勞會議	796,445	11.4	826,642	11.5	924,076	12.1	1,187,667	13.3	(798,621)	(8.9)	(916,658)	(9.7)
總 同 盟	(272,337)	(4.0)	(283,075)	(3.9)	(303,868)	(4.0)	(354,378)	(4.3)	(406,378)	(4.9)	(429,560)	(4.6)
産別會議	58,240	-	-	-	-	-	-	-	-	-	-	-
新産別	41,214	0.6	43,127	0.6	46,063	0.6	42,847	0.5	56,379	0.6	49,458	0.5
中立勞連	-	-	-	-	-	-	-	-	-	-	895,476	9.6
기 타	2,679,926	38.4	2,772,878	38.4	3,080,867	40.2	3,257,336	38.9	3,612,141	40.3	3,964,539	31.6
労働組合員數	4,984,032	100	7,211,401	100	7,461,568	100	8,359,876	100	8,971,154	100	9,357,179	100

年 別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第一労働組合数	27,141조합		27,525조합		27,919조합		28,335조합		28,840조합		29,611조합	
單位労働組合数	51,457조합		52,879조합		53,985조합		55,321조합		56,595조합		58,812조합	
推定組織率	35.0%		34.8%		34.2%		34.1%		34.4%		35.2%	
組 織 別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總 計	4,206,546	42.9	4,249,703	41.9	4,247,493	40.8	4,388,097	39.8	4,214,317	38.8	4,248,858	37.8
同 盟	64.11결성 (136인명)	-	1,659,863	16.4	1,715,908	16.5	1,775,219	16.8	1,848,226	17.0	1,962,786	17.4
同盟會議	1,466,278	15.0	-	-	-	-	-	-	-	-	-	-
全勞會議	(970,085)	(9.9)	-	-	-	-	-	-	-	-	-	-
總 同 盟	(467,242)	(4.8)	-	-	-	-	-	-	-	-	-	-
新産別	58,361	0.6	60,521	0.6	65,876	0.6	69,839	0.7	71,290	0.7	73,985	0.6
中立勞連	935,614	9.5	983,572	9.7	1,020,751	9.8	1,037,908	9.8	1,059,769	11.7	1,344,817	12.0
기 타	3,213,352	32.8	3,290,296	32.6	3,471,589	33.4	3,587,963	34.0	3,523,296	32.4	3,759,187	33.6
労働組合員數	9,799,653	100	10,146,872	100	10,493,742	100	10,566,436	100	10,862,864	100	11,248,681	100

年 別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第一労働組合数	30,658조합		30,589조합		30,818조합		31,674조합		32,734조합		33,424조합	
単位労働組合数	60,954조합		62,428조합		63,718조합		65,448조합		67,819조합		69,333조합	
推定組織率	35.4%		34.8%		34.3%		33.1%		33.3%		34.4%	
組 織 別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總 計	4,282,196	36.9	4,244,820	36.9	4,266,835	35.9	4,340,265	35.9	4,457,387	35.8	4,573,313	36.3
同 盟	2,959,736	17.7	2,172,858	18.4	2,225,928	18.7	2,277,883	18.8	2,312,513	18.6	2,356,897	18.0
新 産 別	74,602	0.6	76,382	0.6	72,891	0.6	78,041	0.6	71,375	0.6	69,678	0.6
中 立 勞 連	1,400,823	12.0	1,349,951	11.4	1,392,703	11.7	1,374,344	11.4	1,491,148	11.2	1,359,294	10.9
기 타	3,943,676	34.0	4,109,550	34.9	4,080,099	34.3	4,419,557	36.5	4,614,229	37.0	4,704,313	37.3
労働組合員數	11,604,770	100	11,796,570	100	11,888,592	100	12,097,848	100	12,461,799	100	12,590,400	100

年 別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第一労働組合数	33,771조합		33,987조합		34,163조합		34,112조합		34,232조합		34,398조합	
単位労働組合数	70,679조합		70,625조합		70,868조합		71,790조합		72,693조합		73,694조합	
推定組織率	33.7%		33.2%		32.6%		31.6%		30.8%		30.8%	
組 織 別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總 計	4,578,311	36.4	4,556,567	36.6	4,625,237	36.5	4,552,907	37.0	4,522,360	36.9	4,534,641	36.7
同 盟	2,208,863	17.7	2,210,260	17.8	2,181,818	17.6	2,416,567	17.4	2,355,897	17.6	2,167,787	17.5
新 産 別	66,163	0.5	64,519	0.5	61,278	0.5	63,248	0.5	61,762	0.5	62,616	0.5
中 立 勞 連	1,354,183	10.8	1,330,889	10.7	1,328,758	10.7	1,337,180	10.9	1,340,256	10.9	1,386,294	11.2
기 타	4,699,337	37.5	4,659,644	37.4	4,679,367	37.8	4,593,362	37.4	4,581,831	37.4	4,626,939	37.4
労働組合員數	12,508,731	100	12,637,812	100	12,382,829	100	12,308,756	100	12,369,262	100	12,471,278	100

年 別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第一労働組合数	34,477조합		34,529조합		34,579조합		34,529조합		34,216조합		34,033조합	
単位労働組合数	74,691조합		74,486조합		74,579조합		74,499조합		74,183조합		73,138조합	
推定組織率	30.5%		29.7%		29.1%		28.9%		28.2%		27.6%	
組 織 別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人 數	%
總 計	4,550,369	36.3	4,508,376	36.0	4,431,112	35.6	4,364,831	35.2	4,270,844	34.6	4,174,774	33.2
同 盟	2,196,441	17.5	2,193,232	17.5	2,176,964	17.5	2,160,692	17.4	2,129,180	17.3	2,102,893	17.1
新 産 別	64,406	0.5	64,816	0.5	68,337	0.5	60,585	0.5	61,885	0.5	66,293	0.5
中 立 勞 連	1,438,876	11.5	1,486,325	11.8	1,512,362	12.1	1,557,173	12.5	1,599,152	13.0	1,646,068	13.4
기 타	4,683,239	37.4	4,829,295	38.7	4,836,264	38.8	4,820,563	38.8	4,819,622	39.0	4,992,945	40.7
労働組合員數	12,525,529	100	12,519,530	100	12,463,755	100	12,417,527	100	12,342,853	100	12,271,969	100

年 別	1988		1989	
單一勞動組合數	33,750조합		33,683조합	
單位勞動組合數	72,792조합		72,605조합	
標準組織率	25.84		25.94	
組 織 別	人 數	%	人 數	%
總 計	3,977,091	32.5	3,967,000	32.0
國 營	87,114명(連 승결성(5,222,154)	63.5	5,445,000 (連合)	44.5
新 産 別	56,361	0.5	88,104명 (連合비중수)	-
中 立 勞 連	87,114명(連 합비 비중수)	-	-	-
기 타	4,166,889	34.1	8,411	-
勞動組合員數	12,227,223	100	12,227,000	100

주: 1) 노동조합수, 노동조합원수, 추정조직률은 勞動省, 「勞動組合基本調査」(각년 4월말 현재)에 의함.

2) 1945년 12월말은 509세조합, 386,677명임.

3) 1946년~52년까 노동조합원수는 「단위」노동조합임. 1953년 이후의 노동조합원수는 「단일」노동조합임.

4) 추정조직률은 노동조합원수를 고용자수(總務省統計局「勞動力調査」각년 4월, 단 1947년은 7월분)로 나눈 백분비임.

5) 노동성이 「중립노련」으로써 결제를 시작한 것은 1963년부터이며, 1957년~1962년까 「기타」에는 중립노련이 포함됨.

6) 단세상조건에 중립가맹이 있기 때문에, 각각을 가산한 것과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7) 결성시켜 ( )안 노동조합원수는 결성대회에서 발표한 수치임.

자료

: 元井久夫, 「日本勞動運動史」, 勞務行政研究所, 1983 ; 勞動省, 「日本の 勞動組合の 現狀」, 1989 ; 日本生産性本部, 「信用勞動統計」, 1990에서 재구성.

III-1. 民間主要企業 및 中小企業의 春季 賃金引上 狀況(「春闘」 개시 이후)

年	對象 企業 (社)	現行ベース (円)	妥結額 (円)	賃金 引上率 (%)	分散 係數	(中小企業)			消費者 物價 上昇率 85年=100 (%)
						現行ベース (円)	妥結額 (円)	賃金引上 率 (%)	
56	72~84	16,873	1,063	6.3	0.29	-	-	-	0.3
57	〃	17,651	1,518	8.6	0.20	-	-	-	3.1
58	〃	18,750	1,050	5.6	0.29	-	-	-	0.4
59	〃	19,708	1,281	6.5	0.20	-	-	-	1.0
1960	156	20,598	1,792	8.7	0.17	-	-	-	3.6
61	163	21,522	2,970	13.8	0.14	-	-	-	5.3
62	163	23,597	2,515	10.7	0.13	16,533	2,338	14.1	6.8
63	162	24,718	2,237	9.1	0.16	17,645	2,091	11.9	7.6
64	161	26,622	3,305	12.4	0.10	19,992	3,159	15.8	3.9
1965	257	29,635	3,150	10.6	0.16	22,325	2,704	12.1	6.6
66	257	32,095	3,403	10.6	0.12	24,407	2,704	11.1	5.1
67	257	35,037	4,371	12.5	0.07	26,009	3,362	12.9	4.0
68	258	38,800	5,296	13.6	0.07	28,835	4,162	14.4	5.3
69	258	43,339	6,865	15.8	0.07	32,536	5,389	16.6	5.2
1970	257	49,503	9,166	18.5	0.06	37,170	7,390	19.9	7.7
71	257	57,459	9,727	16.9	0.07	43,770	8,003	18.3	6.3
72	254	66,243	10,138	15.3	0.08	50,417	8,329	16.5	4.9
73	244	75,446	15,159	20.1	0.05	58,445	12,333	21.1	11.7
74	261	88,209	28,981	32.9	0.07	69,816	23,508	33.7	23.2
1975	265	116,783	15,279	13.1	0.16	91,494	12,886	14.1	11.7
76	260	131,349	11,596	8.8	0.10	103,271	10,045	9.7	9.4
77	268	143,109	12,536	8.8	0.07	112,298	10,609	9.4	8.1
78	281	155,885	8,958	5.75	0.20	121,367	7,825	6.4	4.2
		(156,615)	(9,218)	(5.89)					
79	287	164,866	9,615	5.83	0.10	128,521	8,321	6.5	3.7
		(166,026)	(9,959)	(6.00)					
1980	288	173,320	11,679	6.74	0.06	136,438	10,069	7.38	7.7
		(173,996)	(11,953)	(6.87)					
81	288	182,690	14,037	7.68	0.06	144,882	11,399	7.87	4.9
		(183,163)	(14,158)	(7.73)					
82	288	194,154	13,613	7.01	0.06	154,725	10,633	6.87	2.8
		(195,578)	(13,681)	(7.00)					
83	285	203,655	8,964	4.40	0.15	162,975	7,317	4.49	1.9
		(204,662)	(9,158)	(4.47)					
84	288	209,617	9,354	4.46	0.12	167,940	7,475	4.45	2.3
1985	287	215,998	10,871	5.03	0.09	173,703	8,246	4.75	2.0
86	286	222,869	10,146	4.55	0.14	179,438	7,506	4.18	0.6
87	286	232,118	8,275	3.56	0.18	183,980	6,021	3.27	0.1
88	290	238,409	10,573	4.43	0.12	187,628	7,383	3.93	0.7
89	290	246,549	12,747	5.17	0.11	192,378	9,061	4.71	2.3

- 주: 1) 労働省 勞政局조사  
 2) 주요기업의 조사대상은 원칙적으로 東証 또는 大証 1부 상장기업 가운데 자본금 20억 엔이상, 종업원수 1,000인이상의 기업이며,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임.  
 3) 주요기업 가운데 1956~77년 및 1978~83년의 ( )안의 수치는 1社당 단순평균, 1978년 이후의 수치는 1社마다 조합원수로 가중평균한 것임.  
 4) 분산계수는 타결액의 기업간 4분위 분산계수인데, 다음 식으로 산출함.  

$$\text{분산계수} = \frac{\text{제3} \cdot \text{사분위수} - \text{제1} \cdot \text{사분위수}}{2 \times \text{중위수}}$$
  
 5. 중소기업의 조사대상은 기업규모 300인미만의 기업이며,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약 8,500사임.  
 6. 중소기업의 수치는 전부 1社당 단순평균임.

자료 : 元井久夫, 『日本労働運動史』, 勞務行政研究所, 1983 ; 日本生産性本部, 『活用労働統計』, 1990 ; 日本人事勞務研究所, 『實務賃金統計便覽』, 1990 ; IFS, Yearbook, 1989

### III-2. 公共企業體의 賃金引上 狀況

年度 (4月1日現在(円))	基準内賃金 (組合員)	有 限 回 答	仲 議 決 定 또는 調 停 案	國 會 付 議			실 시 상 황
				關 係 公 會 體	國 會 決 議 案	지 리	
1949	-		(國議)총액45억엔(12월-30억엔,50년 1월이후 재발5억엔)과 지금(專費)(3,799만×6)에서 일시년일 수당을 공제한 액을 년도받아서 지금	國議 專費	일부(1.5억엔)승인 자연소멸	移設用等 移設用等	(國議)일부실시 (專費)완전실시
1950	-		(國議)4월이후 8,200엔 [專費](調停案)4월이후 7,390엔,基 準外 포함하면 8,205엔	國議	일부(소요원자187억엔 중 48.5억엔) 승인	수정예산및 移設用	(國議)일부실시 (專費)자주교섭에 의해 일부실시
1951	-		(國議)(調停案)51년도 10,824엔 (專費)(51년도 7,900엔 (중재제정 제5호) 58월이후 10,400엔 (同 제 12호)	專費	자연소멸	移設用等	(國議)52년 1월 이후 실시 (專費)완전실시
1952	-		(國議)8월이후 13,400엔 (專費)8월이후 13,100엔 (電費)(調停案)8월이후 11,874엔	國議 專費	일부실시(11월이후) 승인 上 同	補正豫算 上 同	(國議)일부실시 (專費)일부실시 (電費)자주교섭에 의해 일부실시
1953	-		8월이후 13,354엔~15,379엔	3公社5院議	일부실시(54년1월이후) 승인	수정예산 및 移設用	일부실시
1954	-		(幹 議 案, 調 停 案) 구체적인 임금계 정안은 제시하지 않음.	-	-	-	-
1955	-		(調停案) 년도내에 1인 5,000엔이 상 지금(54년 3월제시)	-	-	-	-

年度	基準内資金 (組合費) 4月1日現在(円)	有 限 公 司	種 類 別 定 額 及 び 調 整 額	國 會 計 議			실시상황
				關係公金種	國會計議次	처 리	
1954 ~57	-	(58년도에 조우는 58년 11월) 1월 이후 혹은 57년 또 1월 이후임	57년 4월 이후 예산인가 1,009만~ 1,500만의 인상	3조전5억圓	자연소멸	國政을 세치 만 4월말은 林業用等, 기 타는 수당에 관	완전실시
1958	19,263		4월 이후 1.9%	-	-	-	*
1959	-		258만(國庫에서 분할 당시 정준 400만)	國庫	자연소멸	林業用等	*
1960	21,854		4% (단 300만~450만의 범위, 정준 438만)	-	-	-	*
1961	21,482	1,600만원의 (3조전-85 억)	18% (林業, 林業은 12%, 정준 2.25 5만)	5조4천5백圓	자연소멸	수당예산	*
1962	22,971		6% (林業인 8%, 정준 1,400만 定額 850만, 제 2,340만)	-	-	-	*
1963	23,620	고출조입금 8,000만원상 과 이세이온 조성	6.5% (입어양 8.5%, 정준 1,500만 定額 800만, 제 2,400만)	-	-	-	*
1964	28,461	고출조입금 600만 인상 (林業은 300만, 林業은 300만과 이세이온 조성)	國庫-林業 9.5%, 電氣-林業 6.5% 기타 7.5% (정준 7,700 2,300만)	-	-	-	*
1965	31,447	고출조입금 8,300만원상 과 이세이온 조성, 조성 안에서 예산을 포함 하여 6.5% (2,852만)	6.25% (정준 1,978만, 定額 1,207 만, 제 2,375만, 10,7%)	-	-	-	*
1966	34,829	定額에서 2.3% (800만)	6.5% (정준 2,264만, 定額 1,141만 , 제 2,425만, 9.3%)	國庫	자연소멸	國庫法제정	*

年度	基準内資金 (組合費) 4月1日現在 (円)	有 限 公 司	種 類 別 定 額 及 び 調 整 額				國 會 計 議			실시상황
			에이스업 (円)	定額 (円)	승 降 (円)	定率포함 인상률 (%)	關係公金種	國會計議次	처 리	
1967	38,482	한년 중 예산외정액도 (國庫에서)	2,796	1,569	4,269	11.4	-	-	-	완전실시
1968	42,924	*	3,485	1,727	5,212	11.95	-	-	-	*
1969	(47,548) 47,754	*	(4,885) 4,817	(1,745) 1,730	(6,554) 6,508	(13.77) 13.85	-	-	-	*
1970	(54,126) 53,983	*	(6,785) 6,751	(1,858) 1,875	(8,623) 8,628	(15.53) 15.58	-	-	-	*
1971	(62,594) 62,422	國庫에서 (円) 1%	(7,324) 7,234	(2,802) 2,808	(9,236) 9,202	(14.85) 14.90	-	-	-	*
1972	(71,788) 71,358	* 4,887( 9.6 )	(7,597) 7,566	(2,142) 2,135	(9,748) 9,700	(12.57) 12.59	國庫	자연소멸	인간특별조치에 기초 한 경리서 林業用等	*
1973	(80,965) 80,582	定率포함 9,348(12.17)	(11,915) 11,870	(2,252) 2,208	(14,167) 14,078	(17.50) 17.49	-	-	-	*
1974	(94,780) 94,282	* 17,728(18.70)	(25,266) 25,173	(2,425) 2,421	(27,691) 27,594	(29.22) 29.27	(승)國庫, 당분은제외	추경외 議決	-	*
1975	(122,122) 121,735	* 10,637( 8.71)	(14,370) 14,339	(2,829) 2,818	(17,199) 17,207	(14.88) 14.13	(승)國庫, 電氣, 郵政	*	-	*
1976	(138,732) 138,078	* 8,509( 6.13)	(8,993) 8,962	(3,152) 3,181	(12,144) 12,144	(8.76) 8.80	國庫, 電氣	자연소멸	국립농업법, 公債電氣 國庫法 제정	*
1977	(148,664) 148,337	* 11,864( 7.98)	(10,228) 10,199	(3,297) 3,497	(13,625) 13,696	(9.10) 9.12	(승)國庫	추경외 議決	(승인후 운영안제외입 성함)	*

년도	基準内調査 (組合員) 4月1日現在 (円)	有期回答	仲立取定에 의한 調査引上				國會付調			실시상황
			에이스업 (円)	定昇額 (円)	合 計 (円)	定昇모양 인상률 (%)	關係公企體	國會의 議決	처 리	
1978	(161,851) 169,682	定昇모양 6,150( 3.80)	(5,061) 5,035	(3,678) 3,639	(8,731) 8,674	(5.29) 5.40	-	-	-	완전실시
1979	(168,858) 167,956	7,097( 4.20)	(5,768) 5,736	(3,851) 3,767	(9,619) 9,493	(5.70) 5.68	-	-	-	*
1980	(176,553) 174,253	7,880( 4.42)	(7,718) 7,647	(3,997) 3,899	(11,715) 11,546	(6.64) 6.63	國鐵, 郵政	承認의 議決	(승인후 우편법개정 국철차건입성법)	*
1981	(186,395) 183,251	8,285( 4.44)	(9,982) 9,882	(4,258) 4,134	(14,241) 13,996	(7.65) 7.64	3公社5現業	承認의 議決	-	*
1982	(198,479) 194,616	6,554( 3.30)	(9,081) 8,957	(4,568) 4,477	(13,650) 13,434	(6.88) 6.90	*	*	-	*
1983	(207,956) 204,738	5,814( 2.79)	(3,781) 3,740	(4,774) 4,728	(8,555) 8,468	(4.11) 4.13	*	*	-	*
1984	209,702	5,987( 2.8 )	4,085	4,858	8,943	4.26	3公社4現業	*	-	*
1985	214,888	6,295( 2.95)	5,548	5,002	10,550	4.91	1公社4現業	자연소멸	-	*
1986	219,675	6,310( 2.7 )	4,428	5,103	9,531	4.34	國鐵, 林野	承認의 議決	-	*
1987	224,348	제시안함	2,518	5,264	7,782	3.51	-	-	-	*
1988	227,948	定昇모양 6,150( 2.58)	4,528	5,379	9,907	4.36	林野	자연소멸	-	*
1989	233,611	7,973( 3.27)	6,463	5,527	12,000	5.14	-	-	-	-

- 주: 1) 1958년, 61년의 기준에 임금은 1월 현재임.  
2) 58년 이후의 중재제정은 모두 4월 이후 임금업.  
3) 67년까지의 수치는 단순평균, 68년 이후는 가중평균, 단 ( )안 및 유역회당은 단순평균.  
4) 67년부터 「조정위원회 전례」 제제가 시작됨. 또한 「물, 광역, 방직」이 제정됨.  
중재제정은 조정위원회 전례와 같은 내용임.  
5) 〈승〉은 승인안건, 그 이외는 최종안건임.  
6) 알물專賣는 1983년도, 電電, 專賣는 85년도, 國鐵은 87년도에 공공기업체에서 빠짐. 즉 공공기업체는 84년까지는 3公社 4(5)現業, 85~86년은 1公社 4現業, 87년 이후는 4現業(郵政, 林野, 印刷, 造幣)임.  
7) 公共企業體等 勞動委員會는 87년부터 國營企業勞動委員會로 바뀜.  
8) 元井久夫, 「日本勞動運動史」, 勞務行政研究所, 1983; 「春闘實務의 解説と 資料」, 勞務行政研究所, 1990; 日本勞動協會, 「勞動運動白書」, 1989; 日本人勞務研究所, 「實務資金統計便覽」, 1990에서 구성

### III-3. 國家公務員의 給與引上(人事院勸告)의 推移

事項 年度	人事院 勧告			政府의 實施狀況		參 考 給與(基礎給) (行 1・2)
	勸告日	引上率	實施時期	引上率	實施時期	
1948	48.12.10	6,307엔베이스	언급없음	권고대로	48.12	
49	49.12.4	7,877엔베이스	"	실시	않음	
1950	50.8.9	8,058엔베이스	"	7,981엔베이스	51.1	
51	51.8.20	11,263엔베이스	51.8	10,062엔베이스	51.10	
52	52.8.1	13,515엔베이스	52.5	12,820엔베이스	52.11	
53	53.7.18	15,480엔베이스	가능한한팔리	권고대로	54.1	
54	안 함					
1955	55.7.16	기말,근면수당 율0.25월분증액			55.12	
56	56.7.16	6.2%	가능한한팔리	대책으로 권고대로	57.4	17,000
57	57.7.16	기말수당을0.15 월분 증액,통근 수당 신설	"	권고대로	57.12	18,150
58	58.7.16	2.2%	가능한한팔리	"	59.4	19,390
59	59.7.16	4.0%	"	"	60.4	19,740
1960	60.8.8	12.4%	60.5	"	60.10	21,600
61	61.8.8	7.3%	61.5	"	61.10	25,170
62	62.8.10	9.3%	62.5	"	62.10	26,720
63	63.8.10	7.5%	63.5	"	63.10	29,460
64	64.8.12	8.5%	64.5	"	64.9	32,690
1965	65.8.13	7.2%	65.5	"	65.9	36,640
66	66.8.12	6.9%	66.5	"	66.9	40,400
67	67.8.15	7.9%	67.5	"	67.8	44,335
68	68.8.16	8.0%	68.5	"	68.7	49,500
69	69.8.15	10.2%	69.5	"	69.6	55,165
1970	70.8.14	12.67%	70.5	"	권고대로	62,500
71	71.8.13	11.74%	71.5	"	"	65,615
72	72.8.15	10.68%	72.4	"	"	75,285
73	73.8.9	15.39%	73.4	"	"	85,195
74	74.7.26	29.64%	74.4	"	"	110,525
1975	75.8.13	10.85%	75.4	"	"	133,650
76	76.8.10	6.94%	76.4	"	"	151,340
77	77.8.9	6.92%	77.4	"	"	165,195
78	78.8.11	3.84%	78.4	"	"	179,730
79	79.8.10	3.70%	79.4	"	거의 권고 대로	189,235
1980	80.8.8	4.61%	80.4	"	"	198,398
81	81.8.7	5.23%	81.4	"	"	209,404
82	82.8.6	4.58%	82.4	각의에서	보류결정	233,738
83	83.8.5	6.47%	83.4	2.03%	권고대로	235,297
84	84.8	6.44%	84.4	3.37%	"	241,255
1985	85.8	5.74%	85.4	권고대로	85.7	249,209
86	86.8	2.31%	86.4	"	권고대로	263,453
87	87.8	1.47%	87.4	"	"	270,255
88	88.8	2.35%	88.4	"	"	274,920
89	89.8	3.11%	89.4	"	"	281,899

- 주: 1) 봉급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의 상황임(定界은 별도).
- 2) 74년 권고는, 동년 5월에 10% 감정지불한 권고전의 급여에 대한 인상률임.
- 3) 74년 권고부터 행(1)·행(2)급에서 관민급여를 비교함.
- 4) 79년, 80년 권고에 대한 정부의 실시시기는 指定職의 직원에 대하여는 10월 1일, 기타 직원에 대하여는 4월 1일임.
- 5) 81년 권고에 대한 정부의 실시시기는 본부과장 이상의 관리직 직원에 대하여는 82년 4월 1일, 기타 직원에 대하여는 81년 4월 1일임.

자료 : 元井久夫, 『日本労働運動史』, 勞務行政研究所, 1983 ; 日本人事勞務研究所編, 『實務賃金統計便覽』, 1990 ; 勞務行政研究所, 『春闘實務の解説と資料』, 1990 ; 日本労働協會, 『労働運動白書』, 1989.

#### IV-1. 勞動爭議件數, 行爲參與人員 및 勞動損失日數의 推移

年	總 申 願		申請行為를 수반한 申請		行為參加人員 (千名)	勞働損失日數	
	年 間	春 間	年 間	春 間		年 間	春 間
1946	920件	-	810件	-	635	6,266千日	-
47	1,035 (12.5) %	-	683 (^ 15.7) %	-	295 (^ 53.5) %	5,034 (^ 19.7) %	-
48	1,517 (46.6)	-	913 (33.7)	-	2,605 (783.1)	6,995 (39.0)	-
49	1,414 (^ 6.8)	-	651 (^ 28.7)	-	1,240 (^ 52.4)	4,321 (^ 38.2)	-
1950	1,487 (5.2)	-	763 (17.2)	-	1,027 (^ 17.2)	5,486 (27.0)	-
51	1,186 (^ 20.3)	-	670 (^ 12.2)	-	1,386 (35.0)	6,015 (9.6)	-
52	1,233 (4.0)	-	725 (8.2)	-	1,843 (33.0)	5,075 (^ 15.6)	-
53	1,277 (3.7)	-	762 (5.1)	-	1,743 (^ 5.4)	4,279 (^ 15.7)	-
54	1,247 (^ 2.3)	-	780 (2.4)	-	1,547 (^ 11.2)	3,836 (^ 10.4)	-
1955	1,345 (8.0)	-	809 (3.7)	-	1,767 (14.2)	3,467 (^ 9.6)	-
56	1,330 (^ 1.1)	-	815 (0.7)	-	1,605 (^ 9.2)	4,562 (31.6)	-
57	1,630 (26.3)	-	999 (22.6)	-	2,345 (46.1)	5,652 (23.9)	-
58	1,864 (11.0)	-	1,247 (24.8)	-	2,537 (8.2)	6,052 (7.1)	-
59	1,709 (^ 8.3)	-	1,193 (^ 4.3)	-	1,918 (^ 24.4)	6,020 (^ 0.5)	-
1960	2,222 (30.0)	425件	1,707 (43.1)	368件	2,335 (21.7)	4,912 (^ 18.4)	807千日
61	2,483 (11.7)	700 (64.7) %	1,788 (4.7)	633 (72.0) %	2,128 (^ 8.9)	6,150 (25.2)	3,394 (320.6) %
62	2,287 (^ 7.9)	746 (^ 6.6)	1,696 (^ 5.1)	1,643 (1.6)	1,885 (^ 11.4)	5,400 (^ 12.2)	2,351 (^ 30.7)
63	2,016 (^ 11.8)	586 (^ 21.4)	1,421 (^ 16.2)	478 (^ 25.7)	1,781 (^ 5.5)	2,770 (^ 48.7)	1,390 (^ 40.9)
64	2,422 (20.1)	776 (32.4)	1,754 (23.4)	685 (43.3)	1,634 (^ 8.3)	3,165 (14.3)	2,293 (65.0)
1965	3,051 (26.0)	1,088 (40.2)	2,359 (34.5)	989 (44.4)	2,479 (51.7)	5,670 (79.1)	3,445 (50.2)
66	3,687 (20.8)	826 (^ 24.1)	2,845 (20.6)	696 (^ 29.6)	2,293 (^ 7.5)	2,742 (^ 51.6)	1,736 (^ 49.6)
67	3,024 (^ 18.0)	642 (^ 22.3)	2,284 (^ 19.7)	573 (^ 17.7)	1,271 (^ 44.6)	1,830 (^ 33.3)	895 (^ 48.4)
68	3,882 (28.4)	967 (50.6)	3,167 (38.7)	896 (56.4)	2,340 (84.1)	2,841 (55.2)	2,026 (126.4)
69	5,283 (36.1)	1,638 (69.4)	4,482 (41.5)	1,560 (74.1)	3,071 (31.2)	3,634 (27.9)	2,678 (32.2)
1970	4,551 (^ 13.9)	1,491 (^ 9.0)	3,783 (^ 15.6)	1,433 (^ 8.1)	2,357 (^ 23.2)	3,915 (7.7)	2,570 (^ 4.0)

年	總 申 請		申請行爲을 수반한 申請		行爲參加人員 (千名)	勞動損失日數	
	年 間	春 闘	年 間	春 闘		年 間	春 闘
1971	6,861件 (50.8) %	2,678件 (79.6) %	6,082件 (60.8) %	2,481件 (73.1) %	3,623 (53.7)	6,029千日 (54.0) %	4,613千日 (79.5)
72	5,808 (15.3)	3,251 (21.4)	4,996 (^ 17.9)	3,065 (23.5)	2,657 (^ 26.7)	5,147 (^ 14.6)	3,137 (^ 32.0)
73	9,459 (62.9)	4,108 (26.4)	8,720 (74.5)	3,961 (29.2)	4,929 (85.5)	4,604 (^ 10.5)	2,839 (^ 9.5)
74	10,462 (10.6)	5,528 (34.6)	9,581 (9.9)	5,375 (35.7)	6,325 (8.0)	9,663 (109.9)	7,917 (178.9)
1975	8,435 (^ 19.4)	3,998 (27.7)	7,574 (^ 20.9)	3,772 (^ 29.8)	4,614 (^ 13.4)	8,016 (^ 17.0)	3,743 (^ 52.7)
76	7,974 (^ 5.5)	4,089 (2.3)	7,240 (^ 4.4)	4,000 (6.0)	3,400 (^ 26.3)	3,254 (^ 59.4)	2,156 (^ 42.4)
77	6,060 (^ 24.0)	3,055 (^ 25.3)	5,533 (^ 23.6)	2,997 (^ 25.1)	2,413 (^ 29.0)	1,518 (^ 53.3)	1,014 (^ 53.0)
78	5,416 (^ 10.6)	3,218 (5.3)	4,852 (^ 12.3)	3,149 (5.1)	2,083 (^ 13.7)	1,358 (^ 10.6)	899 (^ 11.3)
79	4,026 (^ 25.7)	2,617 (^ 18.7)	3,492 (^ 28.0)	2,518 (^ 20.0)	1,476 (^ 29.1)	930 (^ 31.5)	551 (^ 38.7)
1980	4,376 (8.7)	2,952 (12.8)	3,737 (7.0)	2,860 (13.6)	1,768 (19.8)	1,001 (7.6)	652 (18.3)
81	7,660 (75.0)	1,947 (^ 34.0)	7,034 (88.3)	1,854 (^ 35.2)	2,914 (64.8)	554 (^ 44.7)	342 (^ 47.5)
82	7,477 (^ 2.4)	2,272 (16.7)	6,779 (^ 3.6)	2,175 (17.3)	2,386 (^ 18.1)	538 (^ 2.8)	301 (^ 12.1)
83	5,562 (^ 25.6)	2,061 (^ 9.3)	4,814 (^ 29.0)	1,986 (^ 8.7)	1,773 (^ 25.7)	507 (^ 5.8)	300 (^ 0.3)
84	4,480 (^ 19.5)	882 (^ 57.2)	3,855 (^ 19.9)	743 (^ 62.5)	1,585 (^ 10.6)	354 (^ 30.2)	163 (^ 45.6)
1985	4,826 (7.7)	2,361 (167.7)	4,230 (9.7)	2,277 (206.5)	1,355 (^ 14.5)	264 (^ 25.4)	168 (2.8)
86	2,002 (^ 58.5)	907 (^ 61.6)	1,439 (^ 66.0)	839 (^ 63.2)	463 (^ 65.8)	253 (^ 4.0)	141 (^ 15.6)
87	1,839 (^ 8.2)	548 (^ 39.6)	1,202 (^ 16.5)	500 (^ 40.4)	361 (^ 22.0)	256 (1.1)	183 (29.6)
88	1,879 (2.2)	850 (55.1)	1,347 (12.1)	813 (62.6)	430 (19.1)	174 (^ 32.0)	83 (^ 54.6)
89							

주: 1) 労働者 統計情報部 조사  
 2) ( )안은 대전년 증감률, ^는 감소를 나타냄.

자료: 元井久夫, 「日本労働運動史」, 勞務行政研究所, 1983; 日本労働協會, 「労働運動白書」, 1989; 労働者, 「労働白書」, 1989; 日本生産性本部, 「活用労働統計」, 1990

IV-2. 春季鬭爭 參加人員의 推移

年	春闘共闘	同 型	新 産 別	기 타	合 計
1956	2,900,000				2,900,000
57	3,200,000				3,200,000
58	3,700,000	86,000		459,000	4,245,000
59	3,900,000	168,000	17,000	219,000	4,304,000
1960	4,100,000	166,000	17,000	121,000	4,404,000
61	4,400,000	887,300	25,000	16,300	5,328,600
62	4,800,000	519,700	33,900	32,300	5,385,900
63	5,200,000	1,217,800	47,100	101,600	6,566,500
64	5,200,000	1,143,600	34,300	86,900	6,464,800
1965	5,600,000	736,900	42,900	103,900	6,483,700
66	5,700,000	1,069,000	39,000	105,000	6,913,000
67	5,800,000	1,041,600	45,600	104,500	6,991,700
68	5,818,800	1,270,000	56,000		7,144,800
69	5,925,000	1,251,000	59,000	375,100	7,610,100
1970	6,070,500	1,987,800	60,300	394,700	8,513,300
71	6,033,700	2,066,400	69,100	630,000	8,799,200
72	5,994,900	2,211,200	76,500	662,100	8,944,700
73	6,109,235	2,245,100	81,200	752,103	9,187,638
74	6,215,711	2,277,044	77,722	700,062	9,270,539
1975	6,506,133	2,310,172	77,714	785,757	9,679,776
76	6,582,553	2,264,486	75,480	792,587	9,715,106
77	6,750,958	2,207,896	71,426	780,068	9,810,348
78	6,603,365	2,214,976	69,431	778,621	9,666,393
79	6,591,495	2,182,917	65,524	831,643	9,671,579
1980	6,495,247	2,143,132	67,219	949,595	9,655,193
81	6,509,023	2,154,346	65,799	973,542	9,702,710
82	6,602,809	2,180,596	67,251	1,011,770	9,862,426
83	6,632,286	2,200,270	67,231	1,074,973	9,974,810
1985	1,607,792	123,135	10,844	69,924	1,811,695
1987	386,666	11,235	5,203	56,194	459,298

- 주: 1) 1956~83년까지는 労働省 勞政局조사로서 元井久夫, 「日本労働運動史」, 勞務行政研究所, 1983에 의거한 것이며 1985, 87년은 労働省, 「労働甲議統計調査年報告」, 1985년 및 87년에서 작성한 것임.
- 2) 1985, 87년의 수치는 2~5월에 발생한 정파로서 요구사항에 「임금증액」이 포함된 노동정의를 말함.
- 3) 1985, 87년의 春闘共闘는 總評과 中立勞連을 합친 것임.

IV-3. 메이데이 參加人員의 推移

메이데이 年次	勞動組合 員數 (千名)	全 國		中 央	參 考		中 央 메이데이 參加者數 (萬名)
		會 場 (개소)	參加者數 (千名)	參加者數 (萬名)	會 場	參加者數 (萬名)	
17回 1946年	3,680						50
18 47	5,692						60
19 48	6,677						60
20 49	6,655						52
21 1950	5,774						60
22 51	5,687						60
23 52	5,720	520	1,221	14.5			40
24 53	5,927	441	1,117	15.1			50
25 54	6,076	600	1,444	17.0			50
26 1955	6,286	612	1,002	10.0	583	123	25
27 56	6,463	658	1,554	16.5	650	200	50
28 57	6,763	684	1,667	20.0	800	380	45
29 58	6,984	738	1,779	21.0	580	230	59
30 59	7,211	732	1,557	18.0	470	480	30
31 1960	7,662	831	1,995	21.0	800	500	60
32 61	8,360	884	2,003	23.0	870	600	61
33 62	8,971	959	2,229	23.0	813	630	65
34 63	9,357	921	1,665	21.0	800	650	65
35 64	9,800	1,040	1,994	19.6	700	600	60
36 1965	10,147	1,115	2,340	24.0	750	650	60
37 66	10,404	1,170	2,337	24.6	887	650	60
38 67	10,566	1,124	1,993	22.0	840	660	60
39 68	10,863	1,212	2,002	22.7	1,093	680	55
40 69	11,219	1,287	2,288	22.0	1,076	690	53
41 1970	11,605	1,285	2,263	21.0	1,007	690	54
42 71	11,796	1,317	2,121	17.5	940	700	50
43 72	11,889	1,284	1,907	16.0	886	300	25
44 73	12,098	1,313	2,389	21.5	851	700	50
45 74	12,462	1,304	2,522	22.4	763	700	50
46 1975	12,590	1,323	2,358	18.2	1,112	700	50
47 76	12,509	1,308	2,025	14.4	1,125	350	28
48 77	12,437	1,333	2,828	22.7	1,132	700	50
49 78	12,383	1,374	2,391	18.0	1,131	450	30
50 79	12,309	1,374	1,807	20.1	1,123	550	40
51 1980	12,369	1,345	1,823	20.1	1,122	580	50
52 81	12,471	1,366	1,929	21.8	1,158	650	50
53 82	12,526	1,257	1,635	18.5	1,500	400	30
54 83	12,520	1,177	1,738	18.4	1,200	390	35
55 84	12,464	1,314	1,651	21.0	1,200	3,880	27
56 1985	12,418	1,325	1,765	12.7	1,200	4,230	32
57 86	12,343	1,327	1,692	13.2			
58 87	12,272	1,301	1,473	10.4			
59 88	12,227	1,128	1,580	14.1			

- 주: 1) 全國의 회場, 참가자는 노동성노동국조사.  
 2) 중앙메이데이 참가자수는 경시청조사.  
 3) 참고는 주지자말표.

V. 主要經濟指標一覽

年度	實質		就業者數 (萬名)	完全失業率 (%)	完全失業人數 (萬人)	有效求人倍率 (倍)	勞動生產性 (製造業)		現金結算總額		消費者物價上漲率 (85年=100) (%)	勞動分配率	
	G N P	數					指數(85年=100)	對前年上昇率 (%)	名目	實質		고용자소득 (%)	고용자1인당 취업자1인당 GDP (%)
	(%)	(萬名)	(%)	(%)	(%)	(%)	(%)	(%)	(%)	(%)	(%)	(%)	
1951	-	-	-	-	-	0.33	-	-	-	-	-	-	-
52	11.7	-	-	-	-	0.32	-	-	-	-	-	-	-
53	7.7	3,906	1,664	73	1.8	0.36	-	-	-	-	-	-	-
54	2.8	3,984	1,713	100	2.5	0.27	-	-	-	-	-	-	-
1955	18.8	4,132	1,817	108	2.6	0.22	9.9	-	-	-	58.9	-	93.3
56	6.3	4,209	1,957	93	2.2	0.33	11.3	14.1	8.7	8.3	0.3	51.7	90.8
57	8.9	4,186	2,072	83	1.9	0.39	12.2	8.0	4.4	3.1	3.1	51.6	85.4
58	6.9	4,299	2,167	96	2.2	0.32	12.1	4.8	2.5	3.0	0.4	53.7	84.4
59	11.2	4,368	2,274	90	2.0	0.44	12.6	12.4	6.6	5.5	1.0	52.2	79.5
1960	12.5	4,465	2,494	89	1.5	0.59	15.4	13.2	8.2	3.5	3.6	49.7	74.7
61	11.8	4,589	2,595	83	1.4	0.74	17.0	18.4	11.7	6.1	5.3	49.7	71.4
62	7.1	4,556	2,602	60	1.3	0.68	17.5	2.9	10.5	3.4	6.8	52.7	74.1
63	10.1	4,691	2,696	57	1.2	0.70	19.1	9.1	10.7	2.6	7.6	52.3	73.3
64	9.9	4,673	2,788	53	1.2	0.80	21.4	12.0	9.6	5.8	3.9	53.9	71.7
1965	6.4	4,754	2,913	62	1.3	0.64	22.2	3.7	9.8	2.8	6.4	55.8	72.6
66	11.6	4,844	3,013	64	1.3	0.73	25.1	13.1	10.7	5.2	5.1	54.4	69.9
67	18.9	4,944	3,091	61	1.2	1.00	29.2	16.3	12.8	7.7	4.6	53.2	68.9
68	13.5	5,018	3,164	57	1.1	1.12	32.3	14.0	13.6	7.8	5.3	53.0	67.0
69	12.2	5,059	3,227	57	1.1	1.30	37.8	12.5	15.5	9.7	5.2	52.7	66.4
1970	8.8	5,109	3,340	61	1.2	1.41	41.7	10.3	19.9	8.7	7.7	54.6	67.3
71	5.0	5,151	3,423	68	1.3	1.12	43.5	4.3	14.6	8.1	6.3	59.0	70.2
72	9.3	5,156	3,487	70	1.3	1.16	48.4	11.3	16.8	11.0	4.9	58.6	70.8
73	4.5	5,256	3,625	67	1.3	1.76	56.9	17.6	21.5	8.7	11.7	59.9	71.3
74	8.4	5,223	3,638	80	1.5	1.20	56.6	0.5	27.2	3.2	23.2	65.6	76.6
1975	2.9	5,248	3,669	104	1.9	0.61	54.4	3.9	14.8	3.7	11.7	67.6	78.7

年度	實質 GDP (%)	就業者 數 (万名)	求職者 數 (万名)	完全失 業者數 (万名)	完全 失業 率 (%)	有效 求人 倍率 (倍)	勞働生産性 (製造業)		現今総興産額		消費者物 價上昇率 (85年=100) (%)	勞働分配率	
							額數(85 年=100 (%)	對前年上昇 率 (%)	名 目	實 質 (%)		고용자소득 (%)	고용자1인당 고용자소득 위업자1인당 GDP (%)
76	4.6	5,282	3,726	106	2.0	0.64	81.8	12.1	12.5	2.9	9.4	67.2	78.1
77	5.3	5,358	3,773	113	2.1	0.56	84.1	5.1	8.5	0.5	8.1	67.4	78.5
78	5.2	5,427	3,811	122	2.2	0.56	89.6	8.6	6.4	2.5	4.2	65.7	76.9
79	5.3	5,493	3,896	114	2.0	0.71	77.2	10.9	8.8	2.3	3.7	67.8	76.4
1980	4.0	5,552	3,997	118	2.1	0.75	82.1	6.3	6.3	1.6	7.7	66.6	75.2
81	3.3	5,594	4,848	127	2.2	0.68	84.1	2.4	5.3	0.4	4.9	68.6	76.0
82	3.2	5,664	4,125	143	2.5	0.61	84.9	1.8	4.1	1.5	2.8	69.7	76.2
83	3.7	5,736	4,223	157	2.7	0.68	88.2	3.9	2.7	0.8	1.9	69.5	75.7
84	5.1	5,786	4,281	159	2.7	0.65	95.8	8.6	3.6	1.4	2.3	69.5	76.4
1985	4.5	5,817	4,328	158	2.6	0.68	100.8	4.4	2.8	0.7	2.0	68.9	73.3
86	2.7	5,860	4,382	171	2.8	0.62	101.8	1.8	2.7	2.1	0.6	69.2	73.1
87	5.4	5,936	4,452	170	2.8	0.78	107.7	5.8	1.9	2.2	0.1	69.8	72.4
88	5.3	6,036	4,572	160	2.4	1.01	120.1	11.5	3.8	3.3	0.7	69.5	71.9
1989											2.3		
자료 출처	經企總 (國民 經濟計 算年報)	總務廳「勞働力調査」			職業 安定 業務 統計		日本生産性本部		「毎月勤勞統 計調査」		總務廳	日本生産性本部	

- 주: 1) 실질GDP=55년도까지는 舊집계(1970년기준), 56년도 이후는 신SNA(1988년기준).  
2) 「노동력조사」 연제= 74년도 이후는 요기나라 포함.  
3) 유효구인배율= 55년도까지는 「학술·파트타임 포함」 수치, 56년도 이후는 「학술제외, 파트타임 포함」 수치.  
4) 「세월근로통계조사」 연제는 모두 대건년도 증감율임.